

SING & SONGS

[Volume 1]

인문정보자료실  
CPH1.15

B45

# SING & SONG

[ Volume 1 ]

1996-1-17



Volume 1

*SING*  
*A*  
*SONG*

[ Volume 1 ]



## ■ Volume 1 완결본을 내며... ■

SING A SONG은 정보연대 SING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자신문입니다. 정보화,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의 쏟아지는 말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중심이 되는 정보화 사회를 꿈꾸는 새로운 말을 찾으려 합니다. 기존의 매체는 이미 권력을 가진자의 마이크로 기능하며,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쌍방향 매체인 통신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다수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정보와 투명한 대립지점의 토론, 정보의 집중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SING a SONG은 그런 통신망의 한계와 장점을 끌어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정보화사회의 국가 정책, 기업 위주의 정보화, 정보화사회의 윤리등의 문제에 대한 통신 공간의 토론들을 모아내고 명확한 대립지점을 그어내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하는 것, 그속에서 사용자들의 행동이 이끌어내져야 합니다.

SING A SONG Volume 1 #0 중에서...

'SING A SONG Volume 1 완결본'은 1996년 한해동안 여섯 번 발간된 정보연대 SING Newsletter 'SING A SONG'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 사회'를 위해 바른 걸음을 걸어온 SING A SONG은 1997년을 맞아 새로운 내용과 다양한 매체로 여러분을 찾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TEXT Version을 통신망을 통해 배포할 것이며, 매회 깔끔하게 편집된 HWP Version을 통신망과 출력된 형태로 배포하며, 내용을 축약하여 정보연대 소식지 형태로 우편과 공식배포처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edited by Lee Hyeok (antinet@member.sing-kr.org)

### Volume 1 #0 - #6 편집장의 서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SING A SONG Vol.1의 편집을 맡았던 박인성입니다. Vol.1 동안 SING A SONG은 창간호인 #0호부터 #6호까지 총 일곱번에 걸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Vol.2로 새롭게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SING A SONG은 많은 의미였습니다. SING A SONG은 작게는 정보연대 SING이라는 한 사회단체의 소식지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보연대 SING은 나름대로 정보운동의 영역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SING A SONG은 정보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알려내고 보다 많은 여러분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보연대 SING의 많은 활동들이 SING A SONG에 그대로 녹아나며,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정보연대 SING 내부의 글들로 채워진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txt 포맷의 전자잡지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시도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보다 진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과정들을 통해, 정보연대는 장미빛 일색인 우리의 정보화사회론을 비판하고, 발달한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보다 민주적인 사용을 돕고, 나아가 정보연대의 이상인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를 위해 많은 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편집장 개인적으로도, SING A SONG은 큰 의미였습니다. 본인이 정보연대 SING의 가입했을 즈음 SING A SONG이 탄생하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운동에 뛰어든 본인에게는 엄청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ING A SONG의 많은 착오와 실수는 본인에게 곧 큰 착오와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담기는 많은 내용들은 편집을 맡고 있는 제게는 그대로 하나의 필독서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획을 하고, 필자를 정하고, 그리고 글 재촉을 하고, 또, 편집을 하느라 밤을 샌 그 수많은 날들, 생각해 보면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 앞에 어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아쉬움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것은 웃음으로, 아쉬웠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기며 새로운 편집장님을 맞이하여야 할 때입니다. 모든 변화가 그러해야 하듯이, SING A SONG의 이러한 변화도 '보다 진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SING A SONG에 보여 주신 그 많은 관심들을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정보연대 SING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성(mazda@member.sing-kr.org)



# 정보연대 SING에 대하여

정보연대 SING은 현 사회의 생산력의 핵심인 정보를 매개로 대안적인 사회체제를 고민하는 사회단체입니다. 정보의 독점적 소유에 기반한 현 사회의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사회관계와 독점적 권력을 지양하고자 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고, 네트워크화된 주체들의 수평적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상호 협력적인 사회체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20대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Copyleft문화의 확산이라는 기본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팀단위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메일링리스트

메일링리스트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여러명이 서로 의사교환을 할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BBS의 동보주소록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의 전자우편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메일링 리스트 가입자 전원에게 메일이 가는 서비스로서 집단적인 토론을 위해서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메일링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메일을 쓸 수 있는 계정(account)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등의 국내 대형 상업 비비에스(BBS)를 통해서도 사용해서도 됩니다. 상업 비비에스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인터넷 전자우편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우누리에서 'singnis'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singnis@nownuri.nowcom.co.kr'입니다. 하이텔에서 'singni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시면, 'singnis@hitel.kol.co.kr'입니다. 천리안에서 'singni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시면, 'singnis@chollian.dacom.co.kr'입니다. 나우누리는 '자신의아이디@nownuri.nowcom.co.kr' 하이텔은 '자신의아이디@hitel.kol.co.kr', 천리안은 '자신의 아이디@chollian.dacom.co.kr'로 자신의 인터넷 전자우편주소가 정해집니다.

한글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고객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우편주소(E-mail Address)가 정해집니다. 나우누리의 경우, 'now<고객번호>@nownuri.nowcom.co.kr'입니다. 자신의 고객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PF I 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고객번호가 713번이라면 'now713@nownuri.nowcom.co.kr'와 같은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하이텔, 천리안도 비슷한 방법으로 한글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을 하려면, 우선 메일을 list@mail.sing-kr.org로 보내서 본문에 'subscribe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메일링 리스트]'이라는 한줄을 넣으면 됩니다. SING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을 하려면, 본문에 'subscribe sing'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본문에 'lists'라고 적으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메일링리스트가, 'help'라고 적으면 자세한 설명서가, 'who [메일링리스트이름]'을 적으면 그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한 사람의 명단이 메일로 오게 됩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가입이 되었다는 확인메일이 날라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가입한 메일링 리스트]@mail.sing-kr.org로 메일을 보내면 자신을 포함한 메일링 리스트 가입자 전원에게 메일이 갑니다. SING메일링리스트로 편지를 쓰려면, sing@mail.sing-kr.org로 편지를 보내면, SING메일링 리스트 가입자 전원에게 편지가 갑니다. 다음은 나우누리를 사용하여 SING 메일링리스트에 가입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을 갈무리한 것입니다.

### [나우누리에서 SING메일링 리스트 가입]

```
선택> go imail
Nownuri
MAIL 전자우편-인터넷 편지쓰기 ☎ 02-590-3800
```

수신 주소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H) 참조)

인터넷 주소 : list@mail.sing-kr.org  
제 목 (60Byte이내) : ...

보내실 편지의 본문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1. 문서(Text) 2. 이진(Binary) 3. 문서 + 이진 0. 취소

← 전자우편을 보내는 메뉴로 갑니다.

←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제목입니다.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선택> 1

입력 및 전송방법을 선택하십시오.

1.줄쓰기 2.쪽쓰기 3.PICO 4.VI 5.Zmodem 6.Kermit 0.취소  
선택 > 1

줄쓰기 (끝낼때는 새로운 행 첫칸에 [CTRL + Z] 또는 [.]

- 1: subscribe sing
- 2: who sing
- 3: lists
- 4: help
- 5: .

작성완료(Enter) 편집명령(C) 취소(X) :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편지 작성 내용 확인

- 1. 수신자 인터넷 주소 : list@mail.sing-kr.org
- 2. 제 목 : ...
- 3. 본 문 : 형태(TEXT) 본문크기(3쪽(35줄))

전송하시겠습니까? (Y/n ... 번호 : 수정 )  
발신되었습니다 [Enter]를 누르십시오.

```
선택> go mail
Nownuri
MAIL 전자우편-편지읽기 1/1
```

번호	보낸ID	이름	날짜	종류	크기	제 목
----	------	----	----	----	----	-----

- 1 From: li Internet 97/01/09 TXT 38P Welcome to sing ← 가입한영 메시지
- 2 From: li Internet 97/01/09 TXT 25P Majordomo results: ... ← 도움말등 보낸 메일의 결과

명령어안내(C) 초기화면(T) 직접이동(GO) 종료(X)

### [나우누리에서 인터넷 메일쓰기]

```
선택> go imail
Nownuri
MAIL 전자우편-인터넷 편지쓰기 ☎ 02-590-3800
```

수신 주소는 3개까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H) 참조)

인터넷 주소 : sing@mail.sing-kr.org  
제 목 (60Byte이내) : 안녕하세요, 처음...

- ← 보낸 편지의 종류를 TEXT로 선택합니다.
- ← 줄쓰기를 선택합니다.
- ← SING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합니다.
- ← SING 메일링리스트의 가입자를 봅니다.
- ← 현재 돌아가는 메일링리스트를 알아봅니다.
- ← 사용법을 알고싶을 때...
- ← 끝낼때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 전자우편을 보내는 메뉴로 갑니다.

←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줍니다.  
← 제목을 적습니다.



.... 이하는 일반메일과 동일함 ....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는 경우도 위와 비슷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각 통신망의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정보연대 메일링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anticensor@mail.sing-kr.org :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 forum@mail.sing-kr.org : 대학생 정보운동 포럼
- idcard@mail.sing-kr.org : 전자주민카드 대책위원회
- jca-sing@mail.sing-kr.org : 일본 정보통신운동단체인 JCA와 SING의 토론 메일링 리스트
- jinbo@mail.sing-kr.org :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
- sing@mail.sing-kr.org : 정보연대 SING
- vm\_korean@mail.sing-kr.org : 한국 영상 운동 단체

메일링리스트의 논의 내용을 웹페이지로 보고 싶으면, 'http://kpd.sing-kr.org'로 접속하신후, 왼쪽프레임에서 BBS를 선택하면 됩니다.

### 월드와이드웹

#### 정보연대 SING : http://sing.sing-kr.org

정보연대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정보연대의 활동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습니다.

정보연대 웹페이지는 1994년 3월말 처음 개설된 이래로,

- http://power1.snu.ac.kr/
- http://superbear.snu.ac.kr
- http://sing.cybercom.co.kr/
- http://sing.sing-kr.org/

로 주소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는 정보연대 SING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http://sing.sing-kr.org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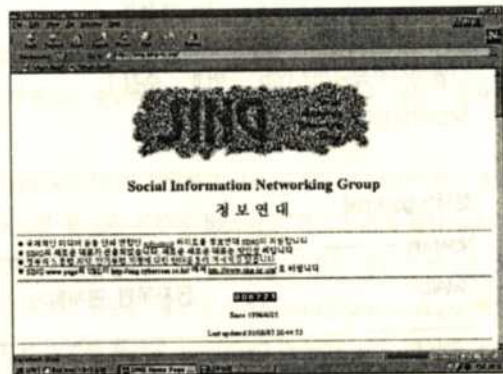
현재 웹페이지는 1994년 3월말이후, 인터페이스의 변화없이 내용만 추가시켜왔습니다. 보다 내용적으로 충실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다 깔끔한 화면을 바라기에 현재 전체 인터페이스와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하고 있습니다.

#### 한국진보디렉토리(KPD) : http://kpd.sing-kr.org

한국진보디렉토리(Korea Progressive Directory)는 한국진보운동의 인덱스와 진보운동 소식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진보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현재까지,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경찰에 의해 침탈', '신이 버린 땅, 덕유산에서 울려 퍼지는 장송곡', '외국인노동자협의회', '반핵평화포럼',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 연대', '전자주민카드 대책위원회' 등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현재는 KPD를 GPD(Global Progressive Directory)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정보연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 한국사회과학네트워크(SSN) : http://ssn.sing-k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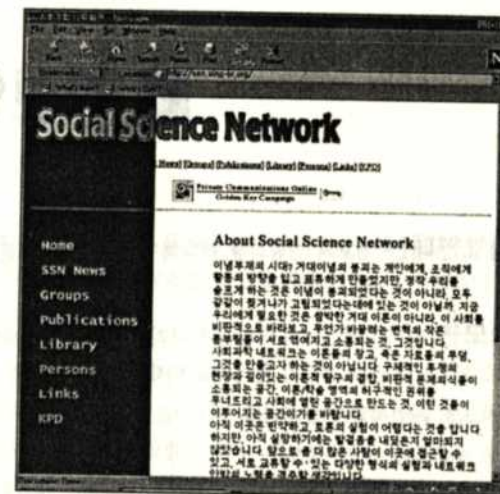
"이념부재의 시대? 거대이념의 붕괴는 개인에게, 조직에게 활동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념이 붕괴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찢겨나가 고립되었다는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씩씩한 거대 이론이 아니라,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무언가 바꿀려는 변혁의 작은 몸부림들이 서로 엮여지고 소통되는 것, 그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사회과학네트워크는 탄생했습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월간흐름' 등이 올라와 있으며, 다양한 사회과학관련 링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더딘 걸음이지만, 꾸준히 걸어가려합니다.

#### Video Move : http://www.videomove.org

Video Movement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World !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Video Move사이트는 비디아이무트(Videazimut)와 정보연대 SING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전세계 진보적 영상운동을 알리는 사이트입니다. 비디아이무트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위한 전세계적 영상운동단체 연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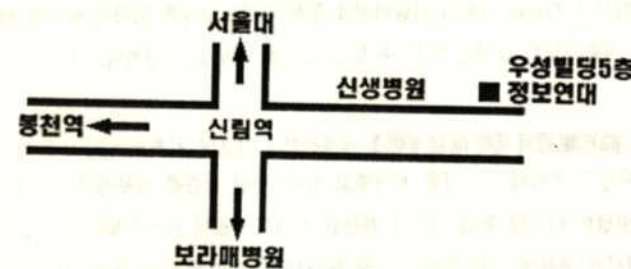
### 인터넷 BBS

SING BBS는 인터넷에 물려 있는 비비로서 작은 토론 공동체입니다. 현재 정보연대에서 뛰고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가장 가깝게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보연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론운동 영역의 메일링 리스트가 연동되므로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 볼수 있습니다. telnet를 사용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telnet bbs.sing-kr.org하신 후 login: 이라는 것이 화면에 뜨면 bbs를 치시면 bbs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새로 오신분들은 new라는 것을 치고,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주 편리하고 주소나 주민번호등의 귀찮은 것을 묻지않습니다. 완벽하게 익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네티켓은 지켜야 겠지요.

정보연대 인터넷 BBS는 웹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kpd.sing-kr.org'로 접속하신후, 왼쪽프레임에서 BBS를 선택하면 됩니다.

### 연락처

- 사무실 전화번호 : +82-02-855-1913
- 사무실 팩스번호 : +82-02-839-9190
-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1578-3 우성빌딩 5층
- 구좌번호 : 085-18-18157-3(외환은행 정태준(정보연대))
- 사무실 약도 :





# ■ 정보연대 SING 강령 ■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면서,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

**정보는** 이 시대 생산력의 핵심이며, 따라서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단지 일반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과 생산양식의 전면적 재편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이는 또한 생산수단의 독점적소유에 기반한 기존의 독점적 권력을 네트워크화된 주체들의 수평적 권력으로 재편시키는 문제이다.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된 이후, 현 사회는 이제 물까지 상품화하고 있으며, 곧이어 공기까지 상품화되어 우리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될 지 모를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류공동의 자산이며, 독점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가 현재 맹렬하게 진행 중이다. 정보연대는, 물과 토지가 그렇듯이, 정보 또한 누구에게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보의 상품화 반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운동은 사회와 인간의 재생산을 위한 공동의 자산인 토지, 물, 공기, 정보 등을 사회의 소유로 환원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연대는** 정보의 배타적, 독점적 소유에 반대하며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는 사회체제를 고민한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단지 정보산업이나 과학기술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의 삶의 양식의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포한다. 현 사회의 경쟁적, 적대적 사회 관계는 정보의 독점적 소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소유에 대한 반대와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풍부한 상호교류와 협력이 기반한 사회체제로 대체되어야 한다. 정보연대는 정보가 성, 인종, 민족, 지역, 계층적 차별없이 교류되길 원하며, 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에도 비타협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정보·지식은**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을 때, 더욱 생산적이 되며, 현대의 고도의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 지식의 저장, 변환, 복제, 유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통의 물적 기반을 이미 완성하고 있다. 또한 POS에 이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기화의 진전과 생산 정보의 공유에 기반한 생산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는 CALS의 대두는 이미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생산관계로의 진일을 웅변하고 있다. 이제 독점적 권력에 의해 생산과정이 일방적으로 통제될 수 없으며, 통제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정보의 생산력화는 기존의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상호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유기적 관계속에서 생산자(혹은 소비자)간의 연대를 통한 생산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대 다국적 기업은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관철과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전세계적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후발업체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에 기반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중복투자에 의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다. 정보연대는 정보 상품화의 법적 근거이며, 기실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대표할 뿐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그 철폐를 주장한다. 또한 이에 대해 정보생산자 네트워크의 철학적 표현인 'Copyleft'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제안한다.

**정보의** 독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제2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과 선진국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은 개발도상국에서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린라운드, 기술라운드 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이중으로 압박함으로써 전세계적 남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보연대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도약적 발전을 꾀하는 것만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한다.

**정보의** 독점은 개인간, 계층간의 정보격차와 함께 빈부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사회의 일방적 통제 기제로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쌍방향적 네트워크의 발달은 직접민주주의와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 공간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국민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에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발달한 디지털 통신 기술에 기반한 쌍방향적, 직접적 의사소통과정이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실제적 힘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권력이나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주어지야 하며, 통신공간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의 제반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를 정치인에게 위임시키는 허구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직접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공적인** 정보는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사적인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공간 내의 문화와 질서는 이용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보연대는 미풍양속과 청소년 보호등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정보심의위원회 등의 정보검열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또한 개인적인 정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술의 공개를 주장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없다. 정보연대는 행정 및 입법, 사법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로서 조건없이 완전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인프라를 형성할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계획 및 운영과정에 있어, 그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사회단체 등을 통한 정책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보연대는** 정보 및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를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의 사용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는 통신기반의 확충과 운영기금으로만 쓰여져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확충은 영리적 목적에 의해서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산업, 행정, 학술, 문화 등 공공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확충되고, 이는 전 국민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교육 등의 정보관련 교육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공적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장려되고, 이를 제작하는 정보생산자는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노력에 대한 댓가는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연대는** 기존의 일대다의 일방향적 정보유통을 담당한 매체에 대하여, 쌍방향적 소통과 연대, 그에 기반한 수평적 권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터넷을 주목한다. 또한 인터넷이 영리적 목적에 이용되고, 독점화된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보연대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의 진보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연대해나갈 것이다.

**다국적기업** 및 기술선진국들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세계정보 흐름의 질서는 전지구적 협력의 차원에서 재편되어야 한다. 정보통신 운동은 일국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정보연대는 우리의 입장을 전세계적인 진보적 단체들과 교류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진보단체들의 통신환경구축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해외진보단체의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의 진보단체들의 연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외침이 하나의 감성적인 외침일 뿐일 것을 항상 경계하며, 대안적 질서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중단없는 반성으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서로에 대한 폭력에 기반하지 않은 쌍방향적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5. 12. 30. 정보연대 성원일동



# 차례

- \* Volume 1 완결본을 내며... ..... 3
- \* 정보연대 SING에 대하여 ..... 4
- \* 정보연대 SING 강령 ..... 8
- \* 차례 ..... 10
- \* 정보연대 통신회원 되기 ..... 13
- 1. SING A SONG Vol. 1 #0 ..... 15**
- 1.1. 편집자의 변 (글쓴이 : 박인성) ..... 16
- 1.2. 정보연대 SING의 활동방향 (글쓴이 : 오병일) ..... 16
- 1.3. 좌파적 정보운동을 제안한다 (글쓴이 : 안유석) ..... 18
- 1.4. 가짜를 죽여라 (글쓴이 : 안유석) ..... 30
- 1.5. 인터넷 상의 진보단체 (글쓴이 : 이혁) ..... 37
- 1.6. 한국의 통신현실과 진보운동 (글쓴이 : 이혁) ..... 38
- 1.7.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변화 (글쓴이 : 안유석) ..... 39
- 1.8. 텔레데모크라시 (글쓴이 : 오병일) ..... 40
- 1.9. 인터넷상의 주목할만한 사회단체 (글쓴이 : 이혁) ..... 41
- 1.10. 정보와 진보운동 (글쓴이 : 오병일) ..... 47
- 1.11. PC통신을 통한 여론형성의 모색 ..... 53
- 1.12. PC통신 단체들의 현황( 조운경) ..... 54
- 2. SING A SONG Vol. 1 #1 ..... 59**
- 2.1. 편집자의 변 (글쓴이 : 박인성) ..... 60
- 2.2. SING 팀별 활동 상황 및 이후 방향 ..... 60
- 2.3. 01410 유료화 반대 투쟁과정과 그 의미 ..... 63
- 2.3.1. 01410 유료화 및 반대투쟁 경과 ..... 63
- 2.3.2. 01410 문제에 대한 분석 ..... 74
- 2.3.3. 01410 사태를 바라보는 정보연대 SING의 입장 ..... 95
- 2.4. Copyleft운동을 제안하며 ..... 97
- 2.4.1. COPYLEFT에 관하여 (글쓴이 : 이 혁) ..... 97
- 2.4.2. GNU 선언문 ..... 100
- 2.4.3. 프로그래머가 바라보는 Copyleft (글쓴이 : 김태욱) ..... 105
- 2.5. 통신연대 월례포럼 ..... 108
- 2.6. 소설 [Login] 서평 ( 글쓴이 : 전주용 ) ..... 113
- 2.7. 사회단체 메일링 리스트 개통 공지 ..... 113
- 3. SING A SONG Vol. 1 #2 ..... 115**
- 3.1. 편집자의 변 ..... 116
- 3.2. 정보연대 활동점검과 이후 활동방향 (이 혁) ..... 116
- 3.3. Copyleft운동을 제안하며 (글쓴이 : 황규만) ..... 118
- 3.4. 메일링리스트 사용에 관해 ..... 120
- 3.5. 통신연대 월례포럼 ..... 124

- 3.5.3. 뉴미디어와 사회운동 : 뉴 미디어에 대한 두서없는 걱정 (김명준) ..... 126
- 3.6. 서울대 공대새터 강연 ..... 132
- 3.6.1. 총평 ..... 132
- 3.6.2. 강연문 : 너희가 정보를 믿느냐? ..... 132
- 3.6.3. 강연 감상글 ..... 137
- 3.7. [여성과 사회] 기고글 : 인터넷상의 여성정보 (이혁) ..... 139
- 4. SING A SONG Vol. 1 #3 ..... 145**
- 4.1. 편집자의 변 ..... 146
- 4.2. About 'Internet Community' ..... 146
- 4.3. SING is ACTing! (이혁) ..... 147
- 4.4. 제3회 서울대 민교협 교양강좌 ..... 148
- 4.4.1. 인터넷과 사회운동 (허진영) ..... 148
- 4.5. 프로그래머가 본 Copyleft ..... 151
- 4.5.1. zomo's diary (양기창) ..... 151
- 4.5.2. KAIST Underbuilt Society : 정보 자유를 위한 무한한 도전 (조용상) ..... 151
- 4.6. [차원]에서 ..... 153
- 4.6.1. 정보통신기술혁명과 정보민주주의 (송용준) ..... 153
- 4.6.2.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 ..... 160
- 4.6.3. 한국에서의 정보민주주의 (윤정규) ..... 168
- 4.6.4. 가상, 혹은 익명적 정체성과 새로운 부족의 형성 (정준희) ..... 173
- 4.6.5. 글을 읽고 (정책팀) ..... 180
- 4.7. [대학생신문] 기고글 ..... 182
- 4.7.1. Blue Ribbon Says Free Speech Online (박인성) ..... 182
- 4.7.2. 어린이 인터넷 운동의 허와 실 (허진영) ..... 183
- 4.7.3. 전국적인 정치신문!! 인터넷? (김상현) ..... 183
- 4.7.4. 네트워크는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 줄 것인가? (고영경) ..... 184
- 4.8. 통신연대 월례 포럼 ..... 185
- 4.8.1. 통신연대 3월 월례포럼 정리 (장여경) ..... 185
- 4.8.2. 통신에서의 음란,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동향 (박현순) ..... 186
- 5. SING A SONG Vol. 1 #4 ..... 195**
- 5.1. 편집자의 변 ..... 196
- 5.2. SING is ACTing! (이혁) ..... 196
- 5.3. 통신인 구속에 관하여 (박인성) ..... 198
- 5.3.1. 문제가 된 게시물들과 그 반응 ..... 198
- 5.3.2. 사건 경과 ..... 205
- 5.3.3. 정보연대 SING의 입장 ..... 205
- 5.4. 해커 구속 사건에 대하여 ..... 208
- 5.5. 제 3 회 정보연대 SING 워크샵 ..... 210
- 5.5.1. 지적소유권에 대한 고찰 (고영경) ..... 210
- 5.6. 대학생신문 기고글 ..... 212
- 5.6.1. 인터넷과 암호화 기술 (이건호) ..... 212
- 5.6.2. 이번 해커 구속 수사의 문제점 (안유석) ..... 212
- 5.7. 통신연대 월례 포럼 정리 ..... 214
- 5.7.1. 4월 주제토론 ..... 214



5.7.2. 5월 월례포럼 준비 ..... 214

5.7.3. 퓌탈 ..... 215

5.7.4. 맥브라이트 학술회의 ..... 215

**6. SING A SONG Volume 1. #5 ..... 217**

6.1. 편집자의 변 ..... 218

6.2. SING is ACTing! ..... 218

6.3. 자본주의, 탈자본주의적 소유형태 ..... 221

6.4.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를 위하여 (고영경) ..... 228

6.5. 대학생신문 기고글 ..... 231

6.5.1. PC 통신의 정치적 가능성 (오병일) ..... 231

6.6. 번역문(노동정보화사업단 김성원) ..... 233

6.7. 통신연대 월례 포럼 정리 ..... 235

**7. SING A SONG Volume 1. #6 ..... 241**

7.1. 편집자의 변 ..... 242

7.2. SING is ACTing! ..... 243

7.3. Articles ..... 244

7.3.1. 빅브라더의 세계 최초 출현 : 전자주민카드 실시 저지를 위하여 ..... 244

7.3.2. 통신검열의 비민주성에 대하여 (김지호) ..... 246

7.3.3. Copyleft.. - 저작권의 궁극적 목적으로 돌아가자! (박인성) ..... 248

7.3.4. 'Magazine'에서 'Webzine'으로 (박인성) ..... 250

7.4. 정보통신포럼 ..... 253

7.4.1. 미국·일본·유럽 정보통신정책의 비교연구 (조형제) ..... 253

7.4.2. 정보통신기술과 생산방식의 변화 (이영희) ..... 257

7.4.3. 정보화사회와 여성 (장여경) ..... 267

7.4.4.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김중서) ..... 270

7.4.5. 정보공개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허인정) ..... 278

7.4.6.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와 ..... 289

7.4.7. 지역사회 전산망 운동을 통해서 본 ..... 291

7.4.8. 정보화와 노동운동 (백영민) ..... 293

7.5. 통신인 구속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통신연대) ..... 299

## ■ 정보연대 통신회원 되기 ■

정보연대 SING에서는 함께 활동할 통신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운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정보연대에서는 통신회원제도를 통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컴퓨터 관련 기기의 기증, 영어 번역, 기술적인 지원, 정보의 교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 도움과 상호 교류를 바랍니다.

정보연대 통신회원은 년 5만원이상의 회비를 내게 되며, 정보연대 SING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을 하셔서,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 사회'를 향한 한걸음이 됩니다.

통신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보연대 서버(member.sing-kr.org)에 자신의 계정을 하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보연대 서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으며, 후원회원의 홈페이지는 정보연대의 홈페이지에 링크됩니다.
-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하여 정보연대가 주관하는 교육에 초대됩니다.
- SING A SONG 제본판을 한 Volume이 완결될 때마다 보내드립니다.
- 정보연대 T-shirt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계좌로 회비를 보내주시고 정보연대로 연락주십시오.

외환은행 085-18-18157-3 정태준(정보연대)



1996년 1월 17일 발행  
제100호  
ISSN 1225-1794

# 한국정보통신학회지

한국정보통신학회지 제100호는 1996년 1월 17일 발행됩니다. 본지는 정보통신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소개하고,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지는 정보통신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소개하고, 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1. VOL. 1 #0

# 1996년 1월 17일 배포되었습니다.

- 1.1. 편집자의 변 16
- 1.2. 정보연대 511G의 활동방향 16
- 1.3. 좌파적 정보운동을 제안한다 18
- 1.4. 가짜를 죽여라 30
- 1.5. 인터넷 상의 진보단체 37
- 1.6. 한국의 통신현실과 진보운동 38
- 1.7.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변화 39
- 1.8. 텔레데모크라시 40
- 1.9. 인터넷상의 주목할만한 사회단체 41
- 1.10. 정보와 진보운동 47
- 1.11. PC통신을 통한 여론형성의 모색 53
- 1.12. PC통신 단체들의 현황 54



# 1.1. 편집자의 변 (글쓴이 : 박인성)

따르릉...따르릉...따르릉...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로 끝나는 영화 <몬머맨>을 기억하십니까? 매일 듣는 전화벨 소리조차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안젤로 박사, 그는 그 정보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보를 독점하려는 권력에 부딪히게 되고 끝내 실패, 비정상적 인간 - 순수한 정원사였던 - '몬머맨'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몬머맨은 끝내 사이버 스페이스 상의 신이 되어 전 세계의 통신망 - 곧 정보망인 - 을 독점하여 그 상징으로 전 세계의 전화벨을 동시에 울리게 합니다. 원작자인 Stephen King - <쇼생크 탈출>의 원작자이기도 한 - 은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였을까요? 가상현실 기술(실제 영화 이후에 구체화된)이 신기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을까요? 그는 자본, 권력, 다른말로 하자면 소수에 의한 정보의 독점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을 낳는가하는 것을 아이러니컬하게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 속의 그 세계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등골이 오싹합니다.

SING은 몬머맨은 정말 영화속의 인물일 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ING은 '정보의 공유'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왜 공유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공유할까요? SING A SONG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 드리고자 고민하겠습니다. SING A SONG Vol.1 #0호는 SING이 고민해서 만들어 낸 그 첫 답안입니다. 감히 모범답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범답안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번 0호는 정보연대 SING 이 그동안 발표했던 글들을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 의미있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SING A SONG 내의 모든 글들의 저작권은 '정보연대 SING' 및 필자에게 있으며 COPYLEFT가 적용됩니다. 자유로운 배포, 원문의 뜻을 훼손치 않는 한 자유로운 수정이 허용되며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연대 SING 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생긴 모든 문제는 편집자에게 있으며, 독자 여러분의 따끔한 꾸짖음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SING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지 모르지만 커다란 움직임. SING은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를위해...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 1.2. 정보연대 SING의 활동방향 (글쓴이 : 오병일)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에 반대하며,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한다. 정보연대는 '정보'를 이 시대 생산력의 핵심으로 파악하며, 따라서 정보를 둘러싼 싸움은 단지 일반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과 생산양식의 재편의 문제라고 이해한다. 더불어 정보의 독점적 소유에 기반한 현재의 적대적/경쟁적 사회관계와 독점적 권력은 네트워크화된 주체들의 수평적 권력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는 정보를 비롯한 사회재생산을 위한 인류의 공동자산이 사회의 소유로 환원되고,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보장된 풍부한 상호교류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관계를 만들으로써만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우리의 실천의 준거점이며, 이에 기반하여 정보연대는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반대, 정보상품화의 핵심적 고리가 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반대투쟁과 정보공유운동의 상징적 표현인 Copyleft운동의 전개, 그리고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힘과 가능성을 보여줄 물질적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정보연대의 구체적인 활동은 팀단위로 이루어지며, 대표와 간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통신망에서의 게시판 활동과 메일링리스트, 전자잡지인 SING a SONG을 통해서 일상적인 내부소통과 외부와의 소통을 담보해나갈 것이다. 현재 정보연대는 정책팀, 기술팀, Web기획팀, 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정책팀

정책팀은 현 사회에서 벌어지는 제반 현상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며, 국내외의

진보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벌여나간다. 다만 앞서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사회현상에 실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들을 조직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과정 속에서 정책들을 마련해나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실험적 실천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정책팀은 통신연대 등 외부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한 연대사업이나 연대조직의 건설을 모색할 것이다. 1996년 여름에 정보관련 학회/단체들의 연대캠프 제안을 준비중이다.

\* Copyleft의 문제의식을 널리 알리고, 통신망 등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물결에 대항하기 위한 Copyleft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보'는 인류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과 정보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SING a SONG 발간 : SING a SONG은 내외적인 소통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잡지이다. 완결된 글이 아닌, SING의 활동과정과 외부와의 소통과정 자체를 그대로 담아낼 것이며, 외부 필진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정보통신운동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교환의 창구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의 쟁점들에 대해서 입장을 마련해 감으로써, 정보연대 SING의 입장을 교류해 나가고자 한다. 1달에 1번 발간될 예정이며, 인터넷과 국내 통신망을 통해 배포될 것이다.

\* SING Web Page의 정책관련 게시판과 Mailing List를 통해 국내외의 진보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 (2) 기술팀

우리의 Copyleft의 외침이 단지 공허한 주장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Copyleft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며, 이것을 계기로 Copyleft에 동의하는 과학기술자들의 연대조직을 모색할 것이다. 정보의 상품화에 대항하여, 정보공유의 효율성과 나누는 기쁨을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Copyleft운동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약 6개월 정도의 시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opyleft의 원칙에 따라 배포할 것이다.

\* 기술관련 SING Web Page와 Mailing List를 통해 기술정보의 교류와 교육을 담당한다.

## (3) Web기획팀

정보연대 SING은 자체 Web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다. 이 서버를 통해 정보연대의 Web Page는 물론, 국내 진보적인 사회운동단체의 Web Page를 개설하여, 국내 진보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외 진보단체와의 연대활동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Web기획팀은 2월말까지 서버를 설치하여 정보연대 SING의 Web Page를 구축할 것이며, 2주에 한번정도로 주기적으로 갱신될 것이다.

\* 3월경부터 국내 진보적 사회단체들에 Web Page 개설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적으로 취약한 사회단체들의 경우는 Web Page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교육과 지원을 할 것이다.

\* SING의 입장에 동의하고 함께 하고자하는 국내외의 사람들과 인터넷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SING의 회원자격으로 교류하고자 한다.

\* 인터넷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인터넷을 통해 SING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험해나갈 것이며, 필요한 기술적 능력들을 갖춰나갈 것이다.

\* HTML, CGI, JAVA의 실제적인 응용에 노력하며, Web Page에 그 내용을 실는다.

## (4) 교육팀

장기적으로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성과 정책적인 입장에 대한 회원들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팀은 다른 팀활동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기존의 SING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1.3. 좌파적 정보운동을 제안한다 (글쓴이 : 안유석) 변혁 지향 정보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우리의 운동적 전망

## ■ 들어가며

9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는 크나큰 변화와 직면하게 된다. 소련방 및 동구공산권의 쇠퇴는 좌파운동의 '뿌리'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거나, 포스트 맑스주의로의 급격한 이념적 선회를 주장하거나, '운동'으로부터 '생활'로 등을 돌렸다.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시민운동에 대한 논쟁을 활발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변혁운동과 시민운동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변혁운동이 주는 '희망'과 시민운동이 주는 '현실 감각'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이것은 다시 풀어 이야기하자면, 변혁운동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화두를 간직한 채, 현대 사회의 문제들 - 성, 인종, 정보, 환경 등 - 을 끌어안은 '운동'을 도출할 수 있겠냐는 문제이다.

여기서 좌파의 약점 중의 하나인 정보화사회 논의를 끌어내 보자. 좌파의 약점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사회주의에 있어서나, 자본주의에 있어서 진보의 관념은 '물질적 기술적 발전'에 대한 찬양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앨빈 토플러 류로 대변되는 후기산업사회 논자들의 '정보사회론'에 대해서 일면적으로는 기술발전에 대한 긍정성을 표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단지 '기술결정론'이라는 딱지만을 붙인 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는 좌파의 자기중심성은 현실적인 변화로부터 이행의 동력,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정보영역을 '생산력'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생산관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것은 후기산업사회 논자들의 미래론적 담론이 주는 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현실의 변화로부터 긍정성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미래담론은 과학기술, 텔리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다른' 사회상을 물신적으로 그리면서, 미래사회 아니 현실사회의 특정부분만 이데올로기적으로 과장하여, 현실을 가리고, 특정 지배 분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현실적인 힘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정보의 영역에서의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경계할 것이다. 또하나의 부문운동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생산의 관점에서 정보영역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자본주의 생산의 위기라는 것을 말할 것이다.

## ■ 시민운동과 정보운동 그리고, 반자본 운동.

시민사회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생성, 성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일반 시민이라는 형식적 동질성을 기반으로한 민주주의의 확대를 초래하나,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수위로 상승하지

는 못하며, 일정 정도 계급관계를 은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사회의 고유한 내재적 기능, 역할로서의 공론의 장이라는 성격보다는 현대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와 생산영역의 유기적 긴밀성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를 주목한다.(이재윤) 이러한 시민사회와 생산영역의 유기적 긴밀성은 내포적 확대재생산이라는 현대 자본주의의 생산체제로 인하여 생산과 소비가 직접적인 연계성을 획득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생산과 소비의 직접적 연계성은 이전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순환메카니즘(재생산 메카니즘)의 유기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유기화는 각 영역간의 상호존성이 증대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순환메카니즘의 유기화에서 발생한다. 순환메카니즘의 유기화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유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또는 통제메카니즘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유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통제메카니즘의 부재 혹은 균열의 접점이 발생한다면 순환메카니즘에서의 한 부분이 파괴되는 순간, 유기적인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증함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발전된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사회적 합의는 물론 통제 메카니즘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바로 지금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통제 불가능성'의 문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지적소유권, 정보통신법 등의 형태로 이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통제메카니즘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통제메카니즘의 마련은 법률적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일국적인 차원의

1. 이러한 합의 통제 메카니즘의 건설은 자본가, 프롤레타리아트 등의 새로운 합의의 규칙을 마련하는 문제이며, 법률적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다. 지적 재산권 등의 법률은 새롭게 유기화된 생산, 분배, 교환, 소비를 부르주아적 이해관계에서 재편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규제는 현재의 전지구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서 무색한 현실이다. 또한, 발흥하고 있는 국가주의의 논리는 다국적 기업의 이해 관계와 충돌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양이 거의 무한대에 달한다는 사실도 있지만, 독자적인 네트워크망이 구축될 가능성을 애초부터 봉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제 생산, 분배, 교환, 소비라는 순환메카니즘의 유기화와 이에 조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합의체제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흔히 시민운동이라고 통칭되는 성, 환경, 정보, 문화, 경제정의, 인권 등의 문제는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간계층의 증대나 그들의 관심영역의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방식 자체에 내재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보의 사유화에 대한 반대로서의 정보의 공유화, 지식의 공공성에 대한 주장은 명분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실상 자본은 이상의 영역에서 일정정도의 통제, 제어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은 반환자극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사회와 생산영역의 유기적 긴밀성은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사회'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시민사회'에서 취해야 할 입장이 명백해 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민사회를 주목하는 이유를 중간계층의 확대와 그들의 관심, 필요의 변화로 둘 때에는 마치 노동운동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갖는 한계<sup>2)</sup>와 동일한 이유로 끊임없는 시민사회의 요동성이라는 기본적 속성에 함몰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순환메카니즘의 유기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틈, 균열의 진원지라는 파악으로부터, 우리는 대안적 권력 창출의 가능성을 획득한다.

## ■ 변혁의 주체 설정 : 사회화된 지식 노동자

좌파운동에서 있어서 하나의 히든카드가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 중심성일 것이다. 90년대에 있었던 커다란 싸움들에서 우리는 힘으로 그것을 확인한다. '전지협 투쟁', '전해투 투쟁', '한국통신노조의 투쟁', '민주노총 건설'의 흐름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힘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그러한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몇 가지의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노동자 중심성은 몇 가지 의미에서 다시 고찰되어야 한다.

첫째, 노동자중심성은 혁명의 주체를 후기산업사회 이전의 육체노동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자본의 분할과정을 낳는다. 정보, 문화,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한 자본의 한 분파와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자본의 분파로 분할되며, 제조업 내에서도 전통적인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을 고수하는 분파와 이른바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방식으로 유연한 생산방식을 창출하는 분파로 나뉘어지게 된다.<sup>3)</sup>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노동현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열악한 저임금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sup>4)</sup>와 새롭게 태동하는 정보처리, 광고, 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상대적으로 지적이고 자유로운 자본에 형식적인 포섭단계에 있는 사회화된 지식 노동자의 분열로 현상한다.

둘째, 노동자중심성은 자본 임노동 관계를 정태적으로 바라보아 자본임노동관계의 모순이 복잡하게 현상하고 있는 생산의 문제를 간과하게 하여, 성, 정보, 교육 등의 문제를 부차화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설정이다. 프랑스에서의 68년 혁명 이후 정통적인 좌파운동이 자신의 치명적 약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서구에서는 시민운동, 급진적 민주주의 운동의 형태로 현대 자본주의의 제반문제에 저항하게 되는 데, 그것이 '신사회운동'으로 불리는 것이다. 남반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사회 운동'의 역사적인 맥락이 사상된 채, 여러 부문의 횡적 나열, 중심을 폐기하는 문제설정 등을 가져와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2. 노동운동을 생산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노동운동 자체에 독자적 중요성을 부과하게 되는 순간, 노동운동은 부문운동화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매시기 임투에 있어서 경제투쟁은 강조될 수는 있으나, 노동자 투쟁의 정치적 측면은 주장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노동운동은 노동의 정당한 댓가를 바라대식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일의 축소투쟁을 통한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노동의 지양, 주장이어야 하며, 정치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경제영역으로 까지 확대하는 노동자의 '경영'의 재전유이어야 한다. 노동운동이 이러한 정치적인 운동을 벌여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체계의 관점에서부터 지양되어야 할 노동이라는 관점이 필요하지, 체계에 의해서 부과받은 노동이라는 개별성으로 갇힌 관점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이러한 자본 간 분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남북문제로 현상하게 된다. 특히 동서 냉전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해체됨에 따라, 실제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문제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적어도 명분상 선진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힘은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것은 황태연이 지적한 바 있는 환경제국주의의 형태로 현상하는데, 국제분업질서에 의한 개도국의 소리없는 주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선진국은 지식 산업중심으로 자국의 산업구조를 조정하면서 개도국에 중공업을 이전하고, 낙후 산업인 핵발전 산업을 개도국으로 이전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유발시키고 있다.

4. 주로 육체노동자이다. 그러나, 거대한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대기업노동자는 또한 일정한 대우를 받는 일용직의 외국인 노동자와 분할되어진다. 체제속에서 보충된 노동자와 비보충된 노동자는 구별되는 것이다. 여전히,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비보충된 노동자는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본의 거대화, 초국적화 과정에서 삐뚤비지의 피티화, 농민의 토지상실(우르과이라돈드를 삼기하리), 국제적인 분업구조속에서의 이민 등의 문제가 가속화한다.



세계,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동자중심성'은 그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철학적 인간주의'의 결과물로서 '유적존재의 자기 실현 과정으로서의 역사'라는 해결적인 파악에서의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선언된 데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노동자는 세계를 건설한다는 류의 담론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인데, 구체적 노동계급의 투쟁형태와 힘의 조직화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추상화된 형태로 이야기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설정으로부터 노동자 중심성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한다. 30년대를 기점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포드주의 헌법' 또는 복지국가 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체제가 군림하였고, 이 체제는 오늘날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헌법 원칙에 동의했던 주체들이 겪은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명백히 드러난다. 이러한 주체들은 일국적 부르주아지를 한편으로 하고, 공산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산업 노동자 계급을 다른 한편으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산업 발전이라는 지상 과제와 계급간의 전반적 수입 분배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 체제들은 형식면에서 차이를 가질 수 있지만, 물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근본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제들이 갖는 물질적 내용이란 저항하는 힘들에게 노동과 수입, 권리와 자유를 분배하는 것이다. 일국적 부르주아지는 파시즘을 거부하고 민족국가에 포섭된 노동자 계급에게 복지 정책을 제공하여 분배 체제 내에서 일정한 착취권을 보장받는 쪽으로 방향을 취하였고, 그 대가로 노동자 계급은 혁명을 포기했다.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대립은 성격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후기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이전의 일국적 부르주아지와 대중 노동자의 대립은 변모하게 된다. 변화의 근거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 번째, 노동과정에서 있어서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의 변화의 경향성이 나타난다. 네그리에 의하면, 『포스트 포드주의 하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정의하는 작업은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포스트 포드주의 하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동화되고 컴퓨터화된 생산 과정 속에서 재구조화된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된다. 점점 더 컴퓨터화, 정보화, 교육화되는 노동에 참여하는, 증가 일로에 있는 지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집중화된 방식으로 이러한 자동화되고 컴퓨터화된 생산 과정을 운영한다. 생활 형태와 노동시간이 재구성되고 더욱 긴밀히 조합되는 상황, 그리고 상품 생산을 위한 격심한 노동과 과학, 기술적 활동의 항상적 뒤얽힘은 포스트포드주의 하의 프롤레타리아트 즉 "사회화된 노동자"인 민중을 기초 지우고 구성한다.(발해자 밀줄)』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의 경향성으로 포디즘으로부터 포스트포디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를 추상하고서 이러한 경향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제자본주의질서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네그리 자신도, 사회화된 지적 노동자의 범주는 노동자의 분할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생산 노동이 과학에 빨려 들어가고 생산이 더욱 사회화되고 추상화되는 상황에서 포스트 포드주의 하의 노동은 점점 더 협동적이며 자율적인 것으로 된다. 자율성과 협동성은 생산적 노동의 경영권을 이제는 포스트포드주의적 노동자들이 쥐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바로 생산성의 발전 그 자체로 인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제 경영권자로서, 협동적이고 지적인 기초로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획득한다.

두번째, 외연적 생산방식에서 내포적 생산방식으로 이월하게 된다. 생산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산업부문의 변화를 초래한다. 전통적인 형태의 중공업 중심의 자연파괴적인 산업, 열악한 노동조건을 산출하는 산업은 점차 감소하고, 소비형태자체를 상품화하면서, 공간의 상품화, 정보의 상품화, 성의 상품화(전통적인 의미와 다른 상품화)를 가져오고, 사회의 교통형태자체가 중요한 산업부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의 내포화로 인한 세계 경제체제의 변혁은 시민사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환경, 정보, 문화, 서비스 등, 이전에는 사람들의 자연스런 생활의 영역이었던 부분들의 생산 영역으로의 편입과 생산-소비의 유기적 연관은 사람들의 삶의 단위와 생산 단위의 간격을 점차적으로 좁혀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운동은 직접적으로 제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환경에 대한 요구가 생산방식을 변동시키고 있으며, 소집단 형태의 문화적 저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의 상품화는 법의 제정과 폭력적인 집행을 통해서 강제되고 있으나, 이것은 그 자체로 통제불가능함을 보여주었고, 법제투쟁에 변혁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생산의 내포화과정은 그야말로 '관계자체의 생산'이 중심이 되는 단계로 진입되었음을 말해주며, 따라서 새로운 생활양식, 새로운 문화의 창출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창출하는 단초가 되게 된다.

세번째, 국제적으로 발달한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노동자 스스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를 위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교통을 위한 물질 기반은 이미 존재한다.

네번째, 국제 금융의 발달, 다국적/초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부르주아지의 일국적 한계가 깨어지고, 세계화된다. 다양한 부르주아지들은 국제화하고 있다. 다양한 부르주아지들은 이제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자본의 금융적 변천에 두고 있다. 글들은 권력의 추상적 대표자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산업 노동자계급은 사회적 노동이 정보화 되고 산업 노동에서 자동화가 지배적으로 되는 급격한 생산 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조건의 변화에 의해, 포드주의 시대의 일국적 자본가와 대중노동자의 대립은 초국적 부르주아지와 사회화된 지적 노동자의 대립으로 변화하게 된다. 네그리의 정리를 옮겨보면, 『다국적 자본이 행사하는 "지배"와 생산력의 구성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빚어내는 적대가 이 시대를

5. 지식노동자와 육체노동자, 보종된 노동자와 비보종된 노동자,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하는 노동자의 분할

특징 지우고, 비물질적 노동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경향이 이 시대를 지배한다. 첫번째 조건은 비물질 노동의 헤게모니적 경향에 근거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는 더욱더 완벽히 과학 기술적 지식을 다루어 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과학 기술적 지식이 대중들로부터 분리된 "신비화된" 명령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두번째 조건은 이미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노동과 사회생활, 사회생활과 개인생활, 생산과 생활 형태 사이를 구별하는 모든 차이점들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노조와 정당, 대중운동과 전위운동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낡고 빈약하고 관료적인 구분들은 이제 결정적으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정치와 과학과 삶은 함께 작동하고 있다.

세번째 사항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힘의 표현을 통하여 기존 권력에 대한 대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가의 분쇄는 생산의 사회적 기초이다 사회적 생산적 협업의 지적 도구인 행정을 재전유함으로써 가능하다. 행정은 "지배"에 의해 공고화되고 또 그것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이다. 행정의 재전유란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재전유란 축적된 비물질적 노동의 더욱 풍부한 재 생산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화된 노동의 경영을 위하여 연대와 협력의 관점에서 개인적 노동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에 저항하는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조직운동의 형태는 어떻게 변모하는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노동자는 반체제운동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딜레마, 지식인과 대중의 분리 - 대중과 전위의 문제설정 - 와 일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사회화된 지적 노동자의 등장은 '노동자 대중의 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를 위한 선전의 구축'을 자신의 핵심으로하는 전위정당 운동의 반성을 요구한다. 대중과 전위를 설정하고 당과 계급의 관계설정, 독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의 문제설정은 새롭게 반성되어야 한다. 노동대중과 전위의 문제설정은 사회화된 지적 프롤레타리아트가 등장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된 현실속에서 대중-전위 모델의 설립 근거인 대립항이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아우토노미아운동을 주목해 보자.

『운동으로서 그리고 이론으로서 아우토노미아는, 자본주의는 불합리한 체계지만 계획을 통해 합리화될 수 있다는 관념에 반대한다. 대신 노동자의 관점을 취하며, 노동자들의 행동을 혁명적 이행의 지렛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로 특권화한다. 경제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관계는 계급 주체들간의 직접적인 정치적 힘관계다. 그리고 당과 같은 소외된 정치적 형태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노동자라는 경제적 범주 속에, 정치적 변화를 향한 이니셔티브가 자리 잡고 있다. '아우토노미아'라는 말은 이러한 역사적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중의 자발적 급진주의와 재생산 영역의 행동주의와의 결합을 지칭한다. 처음에 '아우토노미아'란 말은 자본주의 발전으로부터 노동자 계급의 독립 및 분리를 의미했다. 스스로를 특권화하고 자신의 요구를 가치중시함으로써 이 계급은 노동자들의 중속에 근거한 자본의 가치중시를 파괴할 수 있었다. 그 단어는 '생산적인' 노동자계급의 신성화한 제도들 - 노동조합과 정당 - 과는 독립적인 프롤레타리아적 관심, 투쟁, 조직의 영역이라는 부가적 의미를 획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토노미아는 그것이 자신의 다면적인 잠재력으로 구성해 내는 공산주의 사회 속에 있는 주체의 주요한 특징을 지칭한다.』 (마이클 라이언)

노동자에게 부과된 지적/육체 노동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직접적인 참여정치, 스스로 전위를 형성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운동이 일국적 한계를 벗어나서,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자본의 흐름의 외부로부터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전지구적인 문제설정, 국제적인 NGO의 연대로 부터 가능하다.

### ■ 전지구적인 문제 설정, 국제적인 NGO의 연대로 부터

6. 국가 권력이 운동의 목표였고,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즉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경쟁논리에 의하여, 국제금융, 국제 무역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지상명령인 자본주의 체제화되어 버리는 한계를 갖게 된다.

7. NGO의 기원은 1967년에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을 도와줄 목적으로 회원국들 내에 있는 민간단체들의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후 제 3세계의 ENDA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가 국제적인 NGO회의에 함께 하면서 전세계의 비정부, 비영리 기구가 포괄되게 되었다. NGO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또는 Non-Government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약자로 번역하면 '비정부기구' 정도가 되지만, NGO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비정부기구라 하면 다루는 내용에 있어 천차만별일 것이며, 변혁지향적인 단체에서부터 관변단체까지 그 성격도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NGO를 비정부, 비영리적인 성격을 가지며, 시민사회의 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단체 정도로 규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비정부'라 함은 단지 정부의 산하단체가 아니라는 정도를 넘어 정부로부터 독립적임을 자신의 존재근거로 함을 말한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규정은 NGO의 자기 정체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다. 또한 여기서 '시민사회'라고 규정한 것은 NGO가 기존의 변혁운동을 이끌어왔던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운동이나 제도정치권 내의 좌파와 일정정도 구별하며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나 기업의 부설 단체 등은 우리의 NGO 규정으로부터 제외한다. 물론



" 불평등과 분리를 재생산해내는 권력과 불평등과 분리를 파괴하는 데에 성공해야 하는 임무. 오늘날 대중의 지성으로 이룩되는 소비에트는 국가의 외부에 기계를 만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 안에서 일상적 직접 민주주의는 더욱 자유롭고 복합적인 주체들을 생산해 내면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시민간의 상호작용을 조직한다."(네그리)

자본주의의 힘은 합리성, 진보의 개념일 것이다. 합리성에는 '경쟁'에 의한 효율의 신화가, 진보의 개념에는 '물질적 발전, 기술적 발전에 대한 무한한 찬양'이 깃들여져 있다. 이것에서는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사회주의 운동 진영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은 전체였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개별기업의 합리성이 포괄적으로 보아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비합리성을 가지고, 세계 경제 체제로 확대되었을때 비합리적임을 지적하였다. 맑스는 공황에 대한 논의로부터 자본주의의 합리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know-how와 know-where의 모순속에서 경쟁의 비합리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know-how를 고집 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을 요구받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내 정보들이 활발히 유통되어야만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개별 기업의 정보가 공개되고 유통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know-where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만 그러하고,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know-how를 고집하게 된다. 그러나, 전지구적인 단위의 '지속 가능한 사회'의 모델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국가주의'를 타격하고, 각각의 정보가 공개되어, know-where가 중시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내용 중 환경 정보의 공개, 전세계 국가의 정보공유라는 측면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문제 설정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전지구적인 모델의 설정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 공동의 미래'의 문제설정을 하면서, 거기에 기반한 NGO의 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려 한다. 여기서 이야기를 NGO의 논의 맥락으로부터 시작하자. NGO가 자본의 모순에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권력단위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재의 NGO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의 모순에 저항이라는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 둘째, 나날이 강력해지는 초국적 자본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세력은 국제적인 NGO로서, 그 활동이 권력단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세계, 지역적(local)기반에 근거한 NGO의 국제연대는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 네째, 현대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국제적인 NGO와의 연대이다.
- 다섯째, NGO의 사상적 공유지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량적 시민운동과의 단절, 정치적인 권력단위로서 반자본 투쟁의 맥락에서 NGO의 사상적 공유지점을 찾을 것이다.

다시 자세히 위의 주장을 살펴보자. 첫째, 현재의 NGO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의 모순에 저항이라는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연관된 개념이 아니다. 초국적 자본의 전세계적 영향력 확대와 WTO체제의 출범에 의한 무한경쟁으로의 강제적 편입과 함께,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은 오히려 불거져 드러나고 있으며,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은폐되어왔던, 실업, 빈곤, 외채 등의 남북문제가 전세계적 위기의식을 동반하는 환경문제, 인권, 여성, 소수민족, 난민 등의 문제와 함께 난마처럼 얽혀진 상태로 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나 기업 할 것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동의할 강제를 하고 있으며, 국제 NGO들에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위한 사회형태에 대한 고민은 공감대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초국적 기업들은 NGO들의 압력이 작동하는 한도내에서만 마지막에 움직이거나, 그러한 문제들을 오히려 경쟁력있는 상품(환경상품, 패미니즘의 상품화)으로 만들고 있으며, 선진국 정부들은 자국의 실업문제와 불황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최대한 피해나가며,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등의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남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이 기업이나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현 생산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NGO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애매하게 사실이다. 정부나 기업과 연관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 방향성을 같이 하는 단체들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비정부기구'이면서도 보수적이기에 배제되어야 하는 단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NGO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물론 우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를 NGO로 규정하고, 그들의 활동이나 조직방식으로부터 논의의 많은 영감을 얻어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의 방향성이 아니겠는가? 본 글에서는 NGO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한계에 대한 파악 속에서 NGO들이 변혁의 주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8. 지속 가능한 사회는 우리 세대의 욕구 충족이 다음 세대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 나날이 강력해지는 초국적 자본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세력은 국제적인 NGO로서, 그 활동이 권력단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NGO운동은 그 위상을 달리하는 듯하다. NGO의 파워는 환경, 여성, 정보, 인권, 평화운동, 난민구제, 소수민족, 인종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있으며, 폭발적인 양적 증가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전세계적인 영향력 증대와 상대적인 민족국가의 약화, 일국에서 담보할 수 없는 전지구적인 모순의 등장, 삶의 실제적인 단위의 지역운동의 강화 - glocalization - 와 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확장 - 이른바 Internet - 등에 기인한다. NGO들의 권력은 이제 정부나 초국적 기업이 무시 못할 정도로 증대되어, 국가의 정책이나 기업의 생산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 NGO들은 국가나 기업의 반환경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그것을 고발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현상에서의 격렬한 항의를 수행하기도 한다. NGO 운동은 생활세계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하며, 그래서 기본적인 싸움의 현장은 삶의 다양한 영역이다. 또한 NGO의 조직방식 자체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기도 하며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NGO들의 재정기반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NGO 들의 시민들과 연대한 지역활동이나 생활적 억압에 대한 공동투쟁은 시민들에게는 현실적인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에 대한 교육활동이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세계, 지역적 기반에 근거한 NGO의 국제연대는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NGO의 네트워크는 각 영역의 NGO가 자기의 근거지에서 굳건한 권력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NGO운동은 생활상의 모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삶의 단위의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또한 지역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며, 지방화의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운 점으로도 작용한다.) 지역에 뿌리를 두지 않는 NGO 운동은 정세적인 활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과를 전지에서의 헤게모니 구축이라는 형태로 남기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전지에서의 헤게모니 구축은 이후 정치적인 권력단위가 실제적인 권력단위로 기능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하지만 NGO운동은 지역적, 일국적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역적, 일국적 차원의 활동은 체제 내적인 개량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일국적 차원의 모순이 곧바로 세계적 차원의모순으로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적, 일국적 차원의 대응으로는 초국적 자본과 국가의 권력에 압력을 가하기는 힘들며, 또한 일국적 관점에서 설정된 문제제기는 자칫 국가이기주의로 흐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전 세계적 헤게모니 확대에 저항하고 지구적 차원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재로서는 국제적인 NGO의 연합으로 보인다. 따라서, NGO 들이 진정한 시민사회의 권력집단으로 성장하고, 정부와 기업을 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인 활동과 더불어 NGO들의 연대, 특히 국제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문제든가, 남북문제로 현상하고 있는 빈곤, 실업, 인권, 개발 등의 문제는 이미 한 지역이나, 한 국가 영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일국내에 한정된 NGO의 활동은 민족주의나 국가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92년의 UN환경회의나 올해 95년도에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 등을 통해 세계 NGO들의 논의공간이 마련됨으로써 NGO들의 국제적인 연대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하다. 92년 UN환경회의(리우회의) 이후에 마련된 '세계민간단체환경협약'은 환경, 여성, 아동, 빈민, 기술, 정보, 군사, 핵문제 등 사회문제 전반에 관련된 민간단체협약을 포괄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NGO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NGO들은 국제적인 교류와 연대를 위해서 Internet을 활용하거나 자체 network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에는 IGC(Institute for Global Communication)와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기구들은 각국내에 NGO network를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Network 자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network가 상호교류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 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네째, 현대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국제적인 NGO와의 연대이다. 자본의 증충화된 모순을 기존의 노동운동과 좌파운동이 겨안을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노조중심의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은 신사회운동으로부터 판교화되고, 체제내화되었다고 비판받아왔다.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이 비판받는 지점들은 그것이 더이상 '반체제'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반체제'에 대해서, 즉 '반자본'의 의미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게 만든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운동과 운동조직 자체는 '혁명'하지 못했으며(마치 구소련과 동구권이 선연상의 사회주의로, 결국 당관료의 지배를 받는 국가자본주의로 나갔던 것처럼), 이것은 그들의 '일국적' 방향설정으로 기인한다. 다시말해 그들은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인터네셔널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싸움의 대상은 일국내의 자본가와 국가권력이라는 딜레마에 처했으며,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의 과정에서 그 자신이 국가권력의 관료제적인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초국적 자본의 전세계적인 헤게모니 강화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국적없는 자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세계적인 연대의 기초를 또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국가의 상대적인 약화 속에서도 국가는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절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 이데올로기는 아직 그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초국적인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한 NGO들의 활동과, NGO와 노동운동의 연대, 그리고 그것을 받아안을 수 있는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변화의 모색이 무척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다섯째, NGO의 사상적 공유지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량적 시민운동과의 단절, 정치적인 권력단위로서 반자본 투쟁의 맥락에서



NGO의 사상적 공유지점을 찾을 것이다. NGO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는, 또한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권력단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사상적인 지형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의 NGO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원칙에의 공유를 기반으로 있기는 하지만, 각 NGO들의 사상적 기반과 그에 따른 활동의 방향, 정치화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현재 많은 NGO들이 정당이나, 노동운동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각자의 생활상의 요구를 정치적인 요구로 전화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새로운 생산양식의 창출'이라는 문제로 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NGO운동의 방향을 일관된 체계로 연관지어줄 수 있는 이론화작업이 요구된다. 이것은 NGO운동의 확산과 그 발전적 심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시민운동'이 그 맹아적인 수준이며, 개량주의로 경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NGO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사상적 기반의 형성은 무척 시급한 일이라고 하겠다.

궁극적으로 NGO의 네트워크는 '정치적'인 권력단위를 형성해야 한다. 체계의 변혁은 결국 소유권의 변혁,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체계의 근간이 되는 사적소유의 변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의 NGO들의 저항과 대안을 통합된 정치적인 요구로 모아냄으로써 실제적인 힘으로 전화시킬 정치적인 권력단위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인 권력단위는 시민사회 내에 뿌리내린 NGO들을 자신의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서유럽 녹색당의 실패가 보여주듯, 선거와 의석에 매몰되어 제도정치권내에 포섭되어 버릴 것이다.

이러한 NGO에 대한 관점을 초석으로 하여 정보운동의 이야기를 전개하자.

첫째, 우리의 정보운동 역시 이러한 NGO의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사회화된 지식 노동자의 특히, 정보생산자의 연대를 꾀할 것이다. 둘째, 정보운동이 여타의 NGO운동과의 다른점은 NGO연대의 구체적인 물질기계의 확보를 위한, 즉 '교통형태 자체'를 국가권력으로부터,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이탈시켜 확보하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이를 테면, 네트워크 영역에 있어서의 상품화, 규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 대안적 관점을 가지고 NGO의 교통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민주주의의적인 논리로서, 국가규제로부터 진보적인 공적영역을 지켜내야 하며,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들 - 이를테면 자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정보 생산자로부터 시작되는 무상교환의 '능력에 따른 생산과 필요에 따른 소비'의 교유니즘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자본 역시 자본의 한계 속에서 자본 아닌 것을 자신에 내장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아래에 한글의 지식상품인 워드 '한글'의 상품화 전략을 살펴보겠다. 자본의 집적으로 인한, 기술의 집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인 '한글'을 시장에 내어놓았을 때 핵심적인 문제는 복사본이 떠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글'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은 몇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민족주의적인 감성에 호소한다. 둘째, 상징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피드백과정 속에서, 통신공간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에 의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사용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정품사용자가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거기에, 여러가지 중서, 지적재산권을 들먹인 협박 - 주변의 친한 친구에게도 카피해 줄 수 없다!! - 을 들먹인다. 이러한 상징전략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후의 신용관계 - 업그레이드 - 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는 만족스럽게 받으면 속아서, 정품을 사게 되는 것이다(9).

넷째, 공동체전략이다. 한글을 쓰는 사람들간의 연결의 장을 제공하여, 소비자간의 사용방법의 노하우,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이후의 제품 생산의 방향도 듣고, 잘못된 점도 수정할 기회를 갖고, 사용자들은 한글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글'이 이후의 사업방향에서 사용자 네트워크를 중요한 축으로 삼는 것은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웹(world wide web)에서의 상품화같은 경우 이러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전제하여 출발을 하기도 한다.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정보의 상품화라는 맥락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의 논리라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분리가 철저해야 편할 것이다. 자본 역시 정보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더 문제의식을 확장해 보자. 여전히 소비자/생산자의 도식은 남아 있다. 사용자는 '한글과 컴퓨터'제공한 네트워크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참여하지만, 소비자 정보만 교환할 뿐이다. 그들은 소비자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댓가로 자본의 논리대로의 정당한 댓가를 받고 있지도 않다. 여기서, '한글'의 생산 과정까지 지식 대중의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보생산자의 연대의 의미는 여기서 살아난다. '한글'의 소스의 공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자. 수많은 프로그래머가 한글의 버그를 '능력에 따라' 수정하고, 한글 공동체에

9. 이런 의미에서 진보적인 네트워크를 사고하고 있는 참세상(01410 -> 13 -> 77002)는 진일보한 남한 정보운동, NGO운동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공간인 것이다. 참세상은 시민운동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로 연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참세상은 일반적인 통신서비스외에 사회단체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단체 포럼이란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회단체가 상호연락, 문서 및 정보 공유, 온라인회의, 온라인자료실 등으로 활용하고 회원들간의 토론, 대화, 자료교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 시민운동 단체의 전자적 운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활동을 보이고 있다. 참세상은 노동과 인권에 대한 독자적인 DB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시민운동단체들이 연대활동을 벌이는 것은 외국의 경우 일반적인 추세이다. 상용 PC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그 잠재력이 훨씬 크며, 시민운동에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진다.

10. 우리가 여기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잠려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단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갈라놓고, 정보의 집적도를 자본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소비자/생산자의 도식을 재생산하는 자본의 구조를 문제삼는 것이다.

포함된 수많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 소비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문제가 든다. 과연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한글과 컴퓨터'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도, 소비자가 먹여 살리고 있다. '한글'을 같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공동체는 일정한 기금을 납부하면서, 생산 및 소비 행위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시도하는 집단이 바로 GNU이다. GNU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뒤에서 하겠다.

다섯째, 새로운 공적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통신영역 자체에서의 NGO의 위치와 정보운동의 계급성이다. 공론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는 간과하기 힘든 힌트를 준다. 시민사회의 역사성으로부터 서술하자. 절대주의 정치체제의 자기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흡스의 정치이론이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주지하다시피 흡스는 종교전쟁이라는 내전상태로부터 어떻게 평화가 건립될 수 있는가 하는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 정치적 인간학에 입각하여, 종교전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종교적 당파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일반적 타당성을 부과하여,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다른 종교적 당파들과의 심각한 대립을 초래했던 것이었다. 흡스의 진단은 절대주의 국가로부터 양심의 문제를 배제하고, 공적인영역은 중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제 양심은 사적인 영역으로 간략한 것이다. 이런 국가와 사회의 분리, 정치와 도덕의 분리에 절대주의의 국가는 자신의 존립기반을 갖는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개인은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 공간의 공공화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살롱, 커피숍 등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원리에 입각하여, 담화의 논리에 기반하여, 문화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문화적인 소통으로부터, 사적영역의 나눔이 공공성을 띄어 가면서, 공공영역화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회적 하부구조를 우리는 비국가적이고 비경제적인 결사체, 운동 등을 핵심으로 하는 비경제적 의미의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롭게 태동한 부르주아적 공적영역은 이후, 절대주의의 체제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통신영역이 사적영역으로부터 공적영역화 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는 자신의 사적인 담화의 발전 장으로 부터 시작하고, 담화성의 논리에 의해 평등주의의 논리속에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통신의 영역에서, 이제 일정정도 공공성을 띄고, 여러가지 운동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운동은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전지구적인 관점 속에서, 사회화된 지식 노동자의 연대를 가능케해줄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운동의 구체화된 형태로서 NGO를 우리는 주목한다.

부르주아 공적영역의 지배적인 논리가 담화성에 논리에 기초한 평등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공공성을 띄면서, 국가에 개입하게 될 때, 그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의 반영이라는 굴절을 겪게 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배제를 통한 평등주의의 원리의 훼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이해관계는 사적소유의 보장을 경제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애초에 그것은 부르주아 공적영역의 '문화적인 소통의 장'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가부장이면서 상품소유자인 부르주아지였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면서 대비되는 통신공간(사이버스페이스)의 경우 담화성에 논리에 기초한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이면서, 국제적인 사회화된 지적 프롤레타리아트가 다수를 차지하는 공간이며,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주장하는 반자본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부르주아 공적영역의 형성과정으로부터 얻어지는 현재의 실천적인 함의는 통신공간을 통한 사회화된 지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관계의 현실사회로의 개입을 위한 정치적 공론화가 중요하며, 그 핵심적인 구호인 '정보의 상품화 반대'의 주장을 통한 반자본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관계의 현실적인 세력화이다.

발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한 민주주의의 구현문제가 최근 제기되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전자 마을 회의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을 통칭하여 텔레데모크라시라고 하자. 텔레데모크라시 프로젝트가 나온 가장 직접적인 사회적 배경은 역시 정치적 무관심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선거참여의 감소 즉, 투표율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투표율의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국민국가는 쇠퇴하고 대신에 지구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의 붕괴에 이어 노동운동 중심의 운동도 내리막 길을 걸었다. 대신에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욕구의 증가가 현저히 목격되었다. 국민국가 수준의 정치나 경제 문제보다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 성, 인종, 환경, 인권, 민족 등의 문제가 시민들의 일차적인 요구로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위 신사회운동이 성장한다. 정치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정당정치에 한계가 드러나고 기존의 대중민주주의의 모델로는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시민들은 정당에 기대기 보다는 다양한 자치 조직과 지역주민 운동 등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대의제의 위기를 지칭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현욱(1995)은 텔레데모크라시를 정치사회적인 것으로, 모델민주주의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으로 들고 있다. 그는 모델민주주의가 제기되는 사회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텔레데모크라시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의 정치사회의 해결책이라면 모델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다. 시민운동의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이용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기된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효율적으로 집약하고 시민운동의 취약한 활동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였다. 특히나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하는 시민 운동 단체에게 연락과 회의 등이 용이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은 연대의 매개가 되었다.

텔레데모크라시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것인가 하는 대의제의 보완이라는 측면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경우



당장에 대안으로서 전자투표를 제안할 수 있다. 시민들 에게 편리하고 즉각적인 투표의 수단을 제공하려는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 능력의 과부하로 인해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된다는 정치학의 고전적인 문제는 예외로 하더라도 참여의 효과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 공동체의 구성원이 정치과정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 참여가 정치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가 참여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의제의 보완으로써 텔레데모크라시도 시민운동의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을 위한 모델민주주의도 부족하다고 조현욱은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가상공동체의 정치운동을 텔레데모크라시론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는 두가지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공영역이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탄생한다는 점이다. 이 영역을 민주주의적으로 질서지우려 하는 운동은 정보화 시대의 시민사회(의 한 부분)을 민주화하는 운동인 것이다.

둘째, 가상공동체의 민주주의 운동은 현실 공동체의 민주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가상공동체의 정치운동은 기존의 정당이나 이익 집단의 그것과는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지며, 상이한 정치수단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가상공동체의 정치운동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거나 동일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직되는 조직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참여의 방식도 투표 등의 제도화된 정치행위에 참여하거나 시민운동의 형태로 저항하는 행위 뿐 만 아니라 공동체를 확장하고 그 내부를 민주화하며, 공동체를 가능케한 기술을 민주주의적으로 활용하려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보인다.

논쟁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되짚어 저야 한다.

대의제의 위기는 생산의 유기화에 따른 체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의 결과이다. 이에 대하여 가상영역 자체에서의 정치의 가능성을 통한 현실사회의 개입의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가상공간의 성원은 여전히 현실사회의 주체라는 점에 주목하자. 그들이 통신을 이용하는 형태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띄지만 그들의 다수는 사회화된 지적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정보의 상품화가 계급적인 맥락을 가지는 것은 정보의 상품화에 따라, 자본을 가진 계급은 자본의 운용으로 폭넓은 정보에 접근하고, 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가공, 처리 생산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결국 정보의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는 현실때문이다.<sup>11)</sup>

### ■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신을 활용하는 단체의 분류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의 모임, 동성연애자모임, 환경운동단체, 과학 기술자들의 모임, 학술단체, 온라인 회사등 수많은 단체들이 통신에서 활동하고 있다.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조직)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환경, 성, 과학기술, 남북문제등의 일국차원에서 극복되기 힘든 문제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를 넘어서 단체로 활동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인터넷 상의 진보단체를 전부 열거하거나 분류할 수도 없다. 다만, 사이버스페이스를 자신의 중요한 공간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몇 개의 단체를 알아보고,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주목할 만한 단체는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EFF(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FSF(Free Software Foundation), lead or leave 등이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컴퓨터 전문가들'(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은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이란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에 대한 컴퓨터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정책입안자나 공공에게 정보기술의 힘, 전망, 문제점들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81년 핵무기제조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것을 걱정하는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래로 미국에 22개의 지부를 갖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회원을 받고 있다. 컴퓨터와 관계된 여러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 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컴퓨터와 정보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고, 컴퓨터와 정보기술의 도구에 대한 광범위하고

11. 비슷한 맥락으로 환경위기의 계급성이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저지 투쟁 - 남한 핵발전 폐기의 열쇠, 틈) 「환경 문제의 피해 대상이 사회의 전 성원을 포괄한다는 이유로 환경운동은 당연히 시민운동적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생태학적 위험 자체는 분명 물리적, 생리학적 의미에서 사회집단들에 대해 무차별적인데 반해 이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은 많은 적든 사회계급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환경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피해를 받는 것은 전계급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해 저항을 하는 주체들은 광의의 노동대중이다. 왜냐하면 관료나 테크노크라트는 환경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부를 이용, 개인수준의 대처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계급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는 주도세력은 '학력 높은 봉급생활자 계층의 청년층'이라는 것이고 적어도 그들은 기업 및 공공부문의 나이든 고위관료나 테크노크라트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학력 높은 봉급생활자 계층의 청년층은 사회화된 지적 프롤레타리아트이다.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실제로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며 일반 대중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알려 낸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전문가 그룹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연구내용, 자금 지원, 분배 문제 등 기술 개발을 규정짓는 정치적 과정에 대해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이런 관심을 토대로 하여 수동적 소비가 아닌 참여를 통해 컴퓨터 사용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국가정보기반(NII), 시민자유와 사생활 보호, 작업장에서의 컴퓨터 사용, 기술정책, 인간의 욕구,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확실성과 위협에 대한 토론과 행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CPSR의 강령을 요약한 것이다.

- △우리는 정부가 사회에 대해 위협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대중이 알고 토론하는 것을 지지하며 조장할 것이다.
- △우리는 기술의 영향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사실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기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 나갈 것이다.
- △우리는 기술이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가정에 이의 제기한다.
- △우리는 컴퓨터 기술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적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재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미국 정부에 의해 고안된 정부가 개인 전화 도청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 이른바 'back door'가 내장된 디지털 전화용 암호화 마이크로 칩인 클리퍼칩, 네트워크 사회,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4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CFP(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95), 컴퓨터관련 질병,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정보화사회의 윤리문제등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나 국회에 직접 항의 전화를 하게 하거나 팜플렛을 내고 있다. 그들의 Web주소는 'http://www.cpsr.org'이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표현, 사생활, 온라인 접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CPSR과 비슷한 유형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 재단의 활동은 우리에게 연결되는 광범위한 디지털, 전자 미디어의 거미 줄(web)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전자우편과 컴퓨터 회의와 같은 컴퓨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공동체의 새로운 형태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지리적 구속을 받지 않는 이러한 공동체는 전자적 미개척 분야의 첫번째 이민(집단)을 이룬 다는 것이다. 잘 정립된 법적 원칙과 문화적 규범들이 신문, 책, 전화 등과 같은 상용 미디어의 이용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는 현존하는 구조에 쉽게 맞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의 응용을 정의하기 위한 법적인 투쟁으로서 갈등이 일어난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새로운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희망과 공포를 둘 다 느낀다. EFF는 전자적 미개척 분야(electronic frontier)를 문명화하고 세련되게 하며 교화시키는 것을 돕기위해 설립되었다. 그 분야가 기술 엘리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정 유용하고 혜택이 되도록 하며, 이러한 활동이 우리 사회의 자유의 전통과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공개적 유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이 재단은 매년 '컴퓨터, 자유, 그리고 사생활회의'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Conference)를 연다. 여기에는 학자, 시민 자유주의자(civil libertarian), 법률 관련 관료, 컴퓨터 사용자들이 모여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이슈들을 토론 한다.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확립시켰다고 평가되는 미국 재무성 검찰국(U.S Secret Service) 를 상대로 한 소송과 컴퓨터 커뮤 니케이션과 관련한 법률적 서비스의 지원, 클리퍼 칩(Clipper Chip) 계획에 대한 청원 등의 풀뿌리 (grassroots) 캠페인에 회원 동원 등이 있다. 4월 20일 인터넷에 올라온 그들의 온라인 뉴스인 EFFector Online을 보면 그들의 활동방식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통신감법법 S314에 대해 그 법을 입안한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들에게 항의전화 보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당신이 2분안에 할 수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S314조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문제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알리고 함께 하기위한 단체들의 목록, 그리고 헌법소원 상황에 대해 나와있다. 그들은 행동주의(Act Now!)를 지향한다. 약 한달 간격으로 EFFector Online이란 신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알려 나가며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지침을 내린다. 그들의 Web주소는 'http://www.eff.org'이다.

FSF는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GNU로 유명한 단체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복사, 수정 그리고 재분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 자본의 이윤중식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슬랙웨어란 이름으로 국내에 널리 퍼진 리눅스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응용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바로 GNU Project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한다. 1985년 1월에 갱신된 GNU게시판 (GNUBulletin)을 보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새로운 운영체제로 Hurd란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프로그램의 공개와 자유로운 사용<sup>12)</sup>에 저작권 이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체계를 고심하여, Copyright(저작권)에 반대하여 Copyleft란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저작권이 정당한 사회에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완전히 공개했을 때는 누군가가

12. 그들이 말하는 자유로운(free) 사용은 두가지 의미의 자유(freedom)을 의미한다. 첫번째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친구들에게 복사해줄 자유이고, 두번째는 프로그램의 소스(source)를 보고, 개선시키고, 고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의 저작권으로는 두가지 자유 모두 제약된다.



그것을 고쳐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 허가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만든 개념이 바로 CopyLeft다. 그들은 FSF에 이익의 특정 비율만큼 성금을 기탁하는 회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그 회사들의 free software 배포본을 살 것을 추천한다.

'이끌어라, 못하겠으면 떠나라(Lead or Leave)' 현재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치 압력단체 중의 하나인 '이끌어라, 못하겠으면 떠나라'는 개인용 컴퓨터(PC)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이 단체에는 1960년 이후 태어난 'X세대'만이 가입할 수 있다. 1993년 초 설립된 이 단체는 1995년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 걸쳐 100만 명이 넘는 회원과 지부를 갖는 초거대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PC 네트워크가 이용 비용이 값싸다는 점과 즉각적인 의사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PC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후 'X세대의 긴급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이들의 관심 분야는 재정, 교육, 치안 등 정치 전반에 걸쳐 있다.

lead or leave와 비슷한 단체로는 1992년 설립되어 현재 미국의 25개 주에 걸쳐 11만 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캠퍼스 그린 보트'(Campus Green Vote)가 있다. 이 단체는 현재 '재야(在野) 국회 정보 네트워크'(Shadow Congress Information Network)라는 인터넷 뉴스그룹(mailing list)을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2만 가지 행동지침을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사이버정치(CyberPolitics)라고 부를 수 있다. 일종의 X세대 운동(X generation movement)으로서 대개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존의 정치와 사회운동과는 다른 방식과 요구들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 주로 미국의 인터넷 단체들을 살펴보았다. 남한의 경우를 살펴보자. 몇가지의 분류를 잡아보면, 통신네트워크망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참세상 등의 경우와 통신을 사회단체가 이용하는 다른질서, 나무누리의 환경포럼, 전과도 등의 경우, 통신상에서 단체가 형성된 바른통신모임, 천우물 등의 경우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의 통신 단체들을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직의 이념과 조직론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운동으로서 정보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다. 위의 거의 모든 단체가 그러하다. 이념상 정보를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운동으로 파악하고, 현실 분석을 이뤄 내는 단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연대는 정보를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핵심적 대립지점으로 파악하고, 정보의 상품화의 반대 속에 탈자본 운동으로서 정보운동을 사고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이다. FSF의 경우 정치적인 맥락보다는 정보생산자의 연대, 기술적인 맥락이 강조되었다는 특수성에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인식된다면, 정보의 상품화를 반대하면서, 실질적인 정보생산자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사회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조직론 상으로는 '전문가들의 연대'로서의 조직이나, '지식 대중'에 의한 조직이나에 따라 분류된다. CPSR, EFF는 '전문가들의 연대'로서의 조직이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CPSR의 경우, 정보생산자, 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식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다. lead or leave의 경우는 미국 사회에서의 세대모순<sup>13)</sup>을 중심 축으로 하여, X세대의 정치그룹화 하고 있다. 그들의 경우 미국적 상황의 특수성에서 '예비 지식노동자'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결론

여러 조직 형태와 운동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제 정보 운동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하기에, 인권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법률적인 싸움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내롭게 자본이 이윤 증식을 위하여 상품화하고 있는 정보 영역에 있어서의 합의의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CopyLeft류의 운동은 무척이나 가능성이 크며, 급진적이다. 정보 영역에 있어서의 후기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논리, '지식의 상품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대안적인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회주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법률적 투쟁,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정책 개입이 왜 개량이 아니고 급진적인가를 위해서 설명했지만, 여전히 한계는 남는다. 변화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조건 속에서 새로운 노동자 중심성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화된 지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연대를 이뤄 낼 때 가능해진다. GNU등의 정보 생산자의 연대를 바탕으로한 운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연대가 레닌주의 전위정당의 형태가 될 필요는 없다. 레닌은 '구체적이 특수한 상황속에서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행동'을 잘 했던 혁명가였다. 1900년도의 러시아의 상황과 1990년대의 전지구적 상황은 무척이나 다른 것이다.

참고로, 레닌이 당시에 소비에트를 구상하면서, 우체국 모델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1990년대는 발달한 세계적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전세계의 직접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GNU운동이 가능한 것은 전세계적인 인터넷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교류가 가능하므로 능력에

13.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결국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lead or leave의 판단이다.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는 미국의 발전의 열매를 따먹은 세대이지만, X세대인 자신들은 자신의 부모들보다, 경제수준이 낮고, 이미 안정화된 사회에서 희망이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은 베이붐 세대처럼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세대이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세대이다. 그들의 우울한 정서가 'reality bites'류의 영화에 드러나 있다.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소비가 현실화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정보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인 방식의 통제가 아니라, Glocialization(지구화와 지역화를 합쳐서 부른말)에 따른 분권화, 세계화 속에서도 정보의 집적을 자율적인 공동체 단위로서 - 그러나 그 공동체는 개인 속박하지 않고, 개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 -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형성과 전복의 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조현욱, 1995, 정보화사회의 정치과정변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네그리, 1985, 자유의 새로운 공간  
네그리, 1978, 맑스를 넘어선 맑스  
오병일, 1995, 제3의 권력, NGO, 그 가능성(툼1)  
김동춘, 1980년대의 한국의 레닌주의와 변혁운동  
박태건, 1995, 열 고어 정보초고속도로  
롬넨슨 존코완, 1985, 이끌어라 못하겠으면 떠나라!  
이재운, 1995, 시민사회의 기로(툼1)  
박영도, 1994, 현대 사회이론에서의 비판 패러다임의 구조변동(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4. 가짜를 죽여라 (글쓴이 : 안유석)

## ■ 서문

가짜가 난무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라는 장미빛 환상 속에서 일상인은 여전히 생산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먼발치에서 날아오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환영에 물신을 느낀다. 정보화사회에 가장 민감한 인간들은 새로운 이윤의 창출 영역을 고심하는 자본가들이다. 그들은 정보라는 이름으로 묶어볼 수 있는 현실의 흐름 속에서 자기 몫을 찾아가고 있다. 가장 둔감한 인간은 일상인과 진보진영이다. 반쯤은 환상에 젖어, 자기 앞에 새로운 매체, 새로운 첨단 기계가 쏟아지길 기다리거나, 저널이 제공해주는 정보에 뿔뿔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 피곤한 촉각을 곤두세울 뿐이다. 우리는 이글들 통해 정보라는 이름으로 묶여지고 있는 현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진보진영의 실천전략을 내어볼려고 한다. 서술의 방식은 총체화를 통한 접근이라기보다, 여러 국지적인 문제를 통한 현실의 구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정보에 대한 우리의 상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글에서 보여지는 다르고, 그리고 부분적이라 느껴지는 단락 사이에서 어떤 동일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글을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을 고르라고 한다면, 근대화의 과정으로서의 정보사회라는 관점일 것이다. 근대적인 삶의 양식의 성립은 자본주의 사회를 말함으로써 역사성을 갖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의 핵심적인 두축으로서 화폐로 계산가능하고, 통제된 시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봉건적인 사회관계에서의 자연의 리듬에 길들여진 인간이 이제는 자신이 만든 물의 시간에 맞추게 된 것이다. 정보화시대라는 말이 난무하는 지금은 그런 통제와 규제의 체제가 끝나고, 정신노동의 시대로 왔는가? 답은 아니오이다. 오히려, 지금의 정보화시대의 핵심을 디지털화와 네트워크라고 봤을때, 모든 것을 측정가능한 체계로 포섭해 버리는 디지털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근대의 완성이라는 측면을 우리는 본다. 판옵티콘<sup>14</sup>은 감옥에서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도처에 깔려있다. 지불수단으로써의 화폐기능의 완성인 크레디트 카드는 개인의 소비자정보를 거대기업에 귀여주며, 그 신용정보를 통해 개인은 관리된다. 무엇보다도 개인 자신이 미리쓴돈을 벌어서 갚기위해 사회의 노동력으로 관리되는 치밀한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sup>15</sup>.

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보가 상품이 아님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영동하게 정보는 상품이 되고 있다. 엄청난 현실이다. 현실의 속도와 질서 앞에 무력해지지는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자 이제 우리는 현실을 보며,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 ■ 정보화사회가 주는 환상들 ... 슬한 미래학 류의 서적들을 통해서..

몇해 전부터 남한 사회에서는 슬한 미래학 서적, 신경영 서적,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저널리적인 서적이 유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 <1> 현재의 사회를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새로운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체제의 변화가 오고 있다.
- <2> 이전의 국가 중심의 경제관에서 개별기업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14. 푸코의 감옥의 탄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으로, 벤담이 제안한 원형감옥을 말한다. 감옥의 중앙에는 높은 탑위에 감시자가 있고, 감옥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다. 죄수들은 높은 탑의 회미한 감시자의 그림자만 볼 수 있을 뿐이지만 감시자는 개별 죄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훤히 볼 수 있다. 개별 죄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5. 클린턴의 경제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클린턴 정권에서 노동부장관으로써 실제 정책을 펴기도 했던 로버트비 라이시(Robert B. Reich)의 '국가의 일'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국가경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국경 안에 뿌리를 박고 존재하는 것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뿐이다. ...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상대적으로 국가간의 이동성이 제약된 것..." 로버트비 라이시는 위와 같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국가 공동체라는 것이 무력함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국가의 역할로서 개방화, 민영화, 국제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창조적인 전문가의 양성을 제안하고 있다.

- <3> 이제 제조업의 시대는 갔고, 정보통신 산업의 시대가 왔으며, 개인에 대한 노동력의 통제(물론 육체노동)보다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배양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 <4> 사회의 중심적인 생산력이 제조업에서 정보/지식을 통한 생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 <5> 기업의 관료적 시스템은 새로운 사회에 맞게 재편되어야 하며, 재편되고 있다. 그 결과 중간 관리층은 사라지고, 개인은 창조적인 능력 그 자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 <6> 정치의 영역에서도 기술적 한계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국한되었던 현실이 바뀌어 전자민주주의(텔레데모크라시)가 실현되고 있다.

상당히 설득력있게 수많은 책들이 현실적인 논거를 들며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적인 설명을 치밀하게 회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첫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미래학 서적류의 글들에 대한 정후적 독해로서 정보화사회를 파악해 본다. 그리고, 이들 미래학 논자들의 논의가 긍정성에 치우쳐 있음을 보일 것이다.

## ■ 상징적인 질서를 상상력으로 들춰낸다!<sup>16</sup>

우선 앞의 미래론자의 전제를 회계하기 전에 비판의 관점을 짚어보자. 요즘 유행하는 것은 상상력의 강조일것이다. 상상력을 강조하는대는 나름의 판단의 근거가 있다. 경제영역에 있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한물 갔고,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업이 잘된다는 근거가 하나이다. 그리고, 사회전반의 걸친 물질적인 부는 인류가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생산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또 하나이다. 그리하여, 이제 필요한 것은 고된 통제된 시간하의 노동이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결합시키는 방식, 이미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상상력의 시대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상상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일 것이다. 여전히 남한사회의 경우 관료적인 교육메카니즘 속에서, 군사문화의 영향속에서, 입시라는 악질적인 제도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통제되어야 하고, 아이들은 훈육되어야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참교육을 외친 전교조도 지금은 무력하기만 하다. 하지만, 기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도 소프트웨어 상품을 만들어야한다는 자본의 요구속에서 자유롭고 분방한 상상력을 가진인간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통제와 규율의 질서 속에서 구축된 사회가 이제는 그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상상력을 죽이면 소프트웨어는 없다'(기획 바테스)는 규제의 철폐를 통해서만 상상력으로 남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지를 펼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미래학자의 주장과 상식적인 사고로서 상상력에 대한 강조가 가지고 있는 빈 공간에 주목한다. 그것은 결론부터 말해버리자면, 현대계에 있어서 상상력에 대한 강조는 자본이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 수준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다수의 인간의 문화적, 창조적 생산능력이 거세된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상상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상상력을 가진자가 대접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폭력이다. 지금의 상상력은 자본의 기획력을 말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를테면, 영화에서 보는 환상적인 장면과 좋은 테마와 아이디어들은 엄청난 영화장비를 갖지 않고서는 현실화될 수 없다. 바테스(위의책)의 꿈과 생산의 결합은 자본에 의해서만 실현가능한 꿈일 뿐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일상은 통제된 노동시간하에 있다. 마치 요즘의 직장인들이 직장내에서는 철저한 기업규율을 지키도록 길들여지지만, 여가시간에는 신세대가 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을 익히도록 강요되는 현실을 봤을때 그러하다.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소비의 역학에 가려있는 현실, 생산의 영역이다. 그리고, 매체에 실리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매체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상상력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라고 아이처럼 때를 쓰는 것(바테스의 경우)이 현재에 있어 타당한 역사적인 관점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자본은 규제와 통제의 시간과 소프트웨어와 상상력의 딜레마속에서 개인들을 분할하고 지배한다. 그 속에는 빌게이트와 하무끼와 미야자키 만화영화 감독, 주라기 공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의 몇몇의 신화가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개인을 거대한 생산 메카니즘 속에서 하나의 개별자로 국한 시킴으로써 상상의 영역을 소비적인 것으로 국한 시키는 자본의 전략에 말리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소비의 역학에 가려져 있는 생산을 들춰내는 것이다. 생산의 영역에 대한 접근은 전제로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하나씩 검토하기로 하자.

- <1> 현재의 사회를 후기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새로운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체제의 변화가 오고 있다.<sup>17</sup>
-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난점은 기술결정론적인 전제에 있다.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구조가 변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16. 최근에 나온 국내 서적 중 정보담론을 다룬 것으로 주의깊게 읽어야 할 책으로 '상상력을 죽이면 소프트웨어는 없다'( 기획 집필 창작비평동인 바테스)가 있다. 위의 책에 의하면 이미 사회적 생산의 능력은 충분해졌고,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사회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여 관료제적인 규제 걸음을 탈피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가야 함을 주장하며, 상상력이 이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뒤에 하겠다.



즉, 이들 후기산업사회론자들은 기술을 단지 주어진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기술의 이면에 숨어 있는 개별 주체들의 의도와 세력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기술결정론적인 난점을 제거한다면, 그들의 텍스트는 의미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노동과정에 있어서 통제전략의 변화를 전자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하여 이뤄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의 전산화의 초기형태는 대형컴퓨터를 통한 중앙집중화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업의 관료제적 시스템은 보강되어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도입과 업무의 분산화로 인해 분권화의 과정을 거친후, 개인용 컴퓨터간의 네트워크가 추진되면서, 집중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내의 전산담당자의 세력은 변화하고, 특정 부서의 위치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도 다양한 편차를 보이면서 전산화를 통한 세력편제가 이루어진다. 은행업무와 같이 집중화가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는 1세대적인 방식의 중앙집중화가 우세하다. 그리고, 특정업무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의 분권화가 우세하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초국적 기업화 경향과 유통에 있어서의 체인점을 통한 독점력의 강화경향속에서 분권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2> 이전의 국가 중심의 경제관에서 개별기업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의 경우 이것은 이전의 국민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본축적을 해낸 기업들이 초국가적으로 되면서 국가적 한계 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더욱더 노골적인 자본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제는 더이상 국가를 단위로 하는 경제공동체의 개념은 폐기해야 할 상황이 이르른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복지정책의 실패라는 상황속에서 신보수주의 세력은 공기업의 민영화, 국가규제 완화, 자유무역화를 공론화하면서 국가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후기산업사회론자의 경우, 국가규제 완화, 관세철폐 등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으로 더욱더 가능성이 많고 나온 사회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세계적인 초국적 기업이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려는 초국적 기업의 싸움속에서 이제 더이상 일국적인 단위의 규제는 초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다.소니는 일본 본사가 위성방송을 할 경우 일본 국내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방송국을 세워야 하지만 미국 소니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없는 방송국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소니채널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위성의 경우 이론상 3개만 있으면 지구 전역에 방송이 가능하므로, 인공위성을 통한 초국적 기업의 무규제적인 방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이제 제조업의 시대는 갔고, 정보통신 산업의 시대가 왔으며, 개인에 대한 노동력의 통제(물론 육체노동)보다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배양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위에서 이미 밝혔지만, 이러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엘리트층이라는 것이다. 자본과 타협한 그들은 자본이 제공하는 문화적 기제를 사용, 문화적 기제의 집약을 생산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무력하게 소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대접받고 있는 사회가 된것은 결코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개인간 편차 - 이 편차는 교육에 의해 나타난다 - 특정집단의 배제의 과정을 통해 정보화사회의 장미빛 미래라는 환상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격차를 느끼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적 노동자의 경우 노동력의 통제가 오히려 강화된다. 집중된 공장 네트워크, 집단기술, 지도자, JIT, 균일한 공장가동, 간반시스템, 가동준비시간의 최소화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종신고용, 종업원에 대한 태도, 자동화, 밀도부터 토의식 관리, 품질관리 분임조, 기업이념 등으로 세련된 통제를 하고 있다. 전산화, 네트워크, 정보의 집중화를 통해 이러한 통제가 훨씬 수월해지고, 통제의 방식도 면밀해지고 있다.

<4> 사회의 중심적인 생산력이 제조업에서 정보/지식을 통한 생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위의 주장을 통해 사회적인 부의 재편제를 이야기하곤 했다. 그 논거로서 지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창의력, 상상력 등의 개인적인 속성으로도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제조업에서 정보/지식을 통한 생산으로 중심이 이동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론자의 낙관적인 견해인 사회적인 부의 재편제에 대해서는 곰곰히 따져보아야 한다. 아쉽게도 미래학자들의 낙관적인 견해와는 달리 현실은 냉정했다. 지식/정보가 생산수단의 핵심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정보는 자본가의 손 안에서 늘어나고 있었다. 자본가의 독점적 지위 아래서 늘어나는 정보/지식은 전 세계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노동자의 자율적 참여와 책임감 있는 경영에의 참여와는 달리, 현실이 던져 준 것은 해고와 텔레스크린을 통한 감시였다. 돈이 지불되어야만 한 통화의 전화, 한 bit의 정보, 한 화면의 사용이 가능한 현실이다. 공공 도서관의 정보는 돈이 지불되어야만 이용될 수 있다. 전 사회체제의 움직임이 컴퓨터와 스테레오 페이퍼 텔레비전을 통해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 성인의 1/3이 문맹이라는 반원시적 상태로 물리고 있다. 지식/정보는 생산수단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음에도, 자본주의의 사유화에 그대로 편제됨에 따라 독점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는 그 자체로 소비수단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화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17. 대체로 모든 미래학류의 서적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고이다. 특히, '권력이동'(앨빈토플러)에 의하면, 산업사회를 공장굴뚝시대로 은유하면서 제조업중심의 생산에서 정보/지식에 의한 생산으로의 이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5> 기업의 관료적 시스템은 새로운 사회에 맞게 재편되어야 하며, 재편되고 있다. 그 결과 중간 관리층은 사라지고, 개인은 창조적인 능력 그 자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sup>18)</sup>.

기업의 전산화 등의 과정에서 과연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이전 관료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인가? 아니면 관료제 시스템이 붕괴되는가의 문제설정은 오히려 불만이다. 관료제의 완성으로서 통제의 강화를 정보화사회의 핵심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분권화됨으로써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의 문제일텐데, 우선 관료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서술로부터 현재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이 관료제의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자.

관료제는 지식의 축적 방식과 권력의 행사 통제 메커니즘이 분업화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된다. 관료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는 채널과 칸막이방이다. 칸막이방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채널은 칸막이방과 칸막이방을 연결한다. 중간관리자는 채널의 담당자로서 특정 칸막이방의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 많일 어떤 관료제하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 관료제 시스템은 이를 파악할 수 없다. 각 칸막이방은 자기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문제가 치명적일 때,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특별 부서를 만든다. 새로운 칸막이방이 생기는 것인데, 이 새로운 칸막이방은 기존의 칸막이방의 기득권을 위협하므로, 기존 칸막이방의 책임자들에해 견제당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의 생산자재가 외연적인 생산방식일때는 항상 관료제는 확장되면서 성장하지만, 내포적인 생산의 단계에 와서는 조직자체의 효율성,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정도가 중요해진다 것이다.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다운사이징이 현재에 와서 중요해진 맥락을 짚어보자. 그것은 현재의 기업영역에서는 관료제적인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커버린 자신의 덩치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

부서간의 업무가 너무나 세부화되고 분화됨에 따라,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부서의 내용이 통합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낭비가 있다는 것이다. 큰 조직일수록 내부부서간에 전화, 팩스등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작은 기업일때는 문제가 안됐던 것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리엔지니어링에서는 복잡하게 분권화된 관료적인 기업 조직을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일(프로세스)단위로 조직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전의 지식의 축적방식인 채널과 칸막이방의 기본적인 구조가 아닌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앨빈토플러는 모자이크식의 조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은 기업에서의 전산화, 조직 편제등이 바뀌는 과정은 결코 혁신에 의해서 분권화, 수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전에 중간 관리층을 통한 감시체제가 기술통제에 의해 대체되면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전의 수직적인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6> 정치의 영역에서도 기술적 한계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국한되었던 현실이 바뀌어 전자민주주의(텔레데모크라시)가 실현되고 있다<sup>19)</sup>. 발달된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으로부터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 발달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고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 전자토론, 전자투표 등의 의제설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온라인상의 논의가 현실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 정보의 사유화와 그 한계

18.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다운사이징등의 내용을 다룬 책들의 경우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마이클 헤어의 '리엔지니어링 기업혁명'을 잠시 보도록 하자.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은 노동의 전문화가 가장 최근에 일어난 기업혁명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다음 기업혁명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시장 수요와 기술하에서 업무를 어떻게 조직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다."

마이클헤어의 경우, 이전의 관료적 기업체계를 아예 없는 것으로 사고(제로베이스 사고)하고, 기업이 실제로 수행해야 할 일(프로세스) 단위로 기업의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벤치마킹의 경우는 잘되는 기업을 모방하여, 기업의 구조를 맞추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다운사이징은 가장 미시적이고 공학적인 개념으로 기업을 전산화하면서 군살을 빼는 과정을 나타낸다. 모두의 경우, 기업내에서 어떤식으로 권력관계가 재편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19. 네트워크라는 말이 유행한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네트워크는 자본의 네트워크 뿐이다. 그 이유는 자본만이 거대한 집약된 생산, 소비, 문화체계를 바탕으로 개별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그 유명한 개별화전략에 대해 잠시말함으로써 생산능력이 거세된 개인을 말하고자 한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개인은 문화적 야만의 상태하에 놓여있다. 그들은 스스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스스로 춤을 출 수 없다. 자신의 정서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나타낼려면, 이미 제시된 자본의 상품을 소비하는 길 밖에는 없다. 자본은 이러한 것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관찰시킨다. 소수의 엘리트들, 문화적 기제의 집약을 가지고 꿈을 현실화 시키는 그들을 이용하여 자본은 문화적, 기술적 기제의 집약을 철저히 사유화하여 팔아먹는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은 문화적, 혹은 기술적 창작 능력은 거세 당한채 노래방에 드라마에 영화에 교육도 학원을 거쳐서만 소비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론자, 후기산업사회론자의 시선을 정후적으로 읽어오던 긴 우회를 거쳐 지금 이자리까지 왔다. 이제 비로소 정보라는 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읽혀야 하는지 감이 올 것이다. 좀더 엄밀하게 정보가 어떤 경제학적인 범주로서 파악되는지 분석해보자. 우리는 여기서 자본론의 상품화폐론에서 정보가 가지는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다. 가치는 노동에 의해 나온다는 것은 고전 경제학자 이후 합의된 표현이다. 문제는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이다. 일반적 가치형태에서 화폐형태로의 이행으로 인해 가격관계는 자립성을 갖게 된다. 그에 따라 이전에는 가치를 갖지 않았거나,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것들도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다.

상품-화폐 관계는 상품을 사기 위해 상품을 파는 것이지만, 자본 관계는 이제 상품을 팔기 위해 상품을 사는 것이 되고 바로 이러한 운동 속에서, 가치형태(교환가치)가 자립하게 되면서, 그의 본질이었던 '노동(가치)'을 '상품-화폐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갈 그대로 산 노동 자체는 물화되어, 노동력 상품이 되었다.(뽀1)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만 나온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노동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쩔 것인가? 그러나, 엄연히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력이 팔리고 있다. 노동력의 가격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겨진다. 노동력은 이미 가격관계가 전제된 후, 가치를 매길 수 없는(혹은 애매한) 인간의 노동에 가격이 매겨진다. 가격이 매겨지는 메커니즘은 노동력의 경우 노-사의 매년의 임투, 사회적 상황 등의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노동의 산물, 특히 정신노동의 산물인 정보가 상품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소프트웨어, 지식)가 상품이 되는 현실은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것과는 다르게 특수하다. 맑스의 말대로 고립된 노동의 생산물만이 상품으로 대립된다. 즉, 인간의 노동이 고립된 상태에서 행해져야만 그들의 노동 생산물은 상품이 된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이제 과연 어떤 개인의 가치?가 고립된 노동의 결과인 생산물을 통해 시장에서 화폐량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이제 노동력은 사회에 의해 미리 관리되고 있지 않는가? 회계년, 월, 일에 맞춰 모든 사업장에서는 임금투쟁을 통해 총 노동생산물 중에서 노동력의 가치(그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성)를 미리 계획적으로 조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조정된 임금이 상품-화폐 관계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해서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이러한 임금의 하방경직성, 이미 노동력은 상품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미리 구축된 사회적 역 관계 속에서 계획되어 투입되고 있지 않는가? 즉 이제는 고립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노동생산물이 상품이 되어 사용가치라는 개인적 측면의 계기와 가치라는 사회적 측면의 계기의 분리가 필연화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뽀1) 더우기 정보상품은 결코 고립된 노동의 산물일 수 없다. 정보상품은 사회적 생산을 전제로 해서만 진행된다. 그 상품들의 소비 행위 자체가 생산에 곧바로 피드백되는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품 고유의 속성으로서의 소비행위를 통해 사용가치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용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가능성들 쓰면 쓸수록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측면, 소비가 생산으로 연결되는 측면들이 정보의 상품화, 사유화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정보의 사유화의 법적인 보증이 지적재산권이다. 지식은 인류 전체의 공유물이라는 계몽주의적 관점이 지금의 야만적인 상황에는 딱 맞는 대응인 것 같다. 전사회적으로 정보가 공유된다면 엄청난 생산력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우리의 명확한 주장,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가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합리화라는 식으로 오해되는는 안된다. 정보가 상품이 되는 현실, 자본주의적 관계의 지양없이 정보공유는 합법, 불법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여전히 정보생산자에게 남겨진 문제, 생산수단을 소유한자(이는 정보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소스의 축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소통의 망을 지니고, 어느 정도의 정보생산 장비를 소유한자를 일컫는다.)와 정보생산자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정보생산자를 정보공유 운동에 포섭해야 한다.

**■ 근대화의 과정으로서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동시대인의 세상. 공간과 시지의 거리가 없어지고 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근대화의 과정은 화폐로 계산가능하고 통제된 시간으로 측정가능 사회로 인간의 사회를 조직화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변화의 과정으로서 노동과정을 주목해보면, 과거에는 노동을 하는 인간의 시간의식은 자연의 리듬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팔릴 수 없었던 노동력이 화폐로 계산되어지고, 자연의 리듬에 따랐던 노동시간은 자본주의적 시간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된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경우 노동의 통제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확립해 가는 시기로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규율화된 권력을 통해 여러 국지적인 시간대가 통합되면서 국민국가의 형태로 경제단위가 구성되어지면서 대기업, 중소기업등의 분할이 일어난다. 문제는 초기 자본주의 그 완성의 모습으로 국민국가와 제국주의가 있었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국민국가적인 틀이 무색해지는 상황에 온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경제적인 독립성은 GATT, UR등으로 드러났지만 자유무역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국제적인 통신의 필요성에 과학기술력이 적용됨으로써 전세계가 동시공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더이상 자본주의적 질서에 성역은 없다. 전세계는 상품화폐관계라는 거대한 사슬에 얽혀 있다.

우리는 현재 자본의 진행과정을 디지털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전세계적인 시간대의 성립과 모든 것이 계산되어지고 환원가능한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과정에 있어서의 통제도 전산화와 표준화 가 진행되면서 정교해지고 있다.

그렇게 관리되고 예측가능하게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성이 배제와 분할의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듯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도 일반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도는 국가별, 도시와 농촌별 편차가 오히려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용어로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를 정의하는 용어가 나올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표준에 대한 소유권을 독점기업이 가지게 됨에 따라 저개발국, 정보빈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가져오는 정보**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화의 완성으로서의 정보화사회의 단면을 읽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를 통해 전세계적인 시간대의 통일을 가져왔지만,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을 태동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흔히들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단은 PC통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우선 우리는 새로운 시간대로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말하기 전에 우회를 거쳐도록 하자. 앙시앙 레짐으로부터 근대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문제를 잠시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우선 개인주의의 문제인데, 자본주의의 도래는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부르주아지의 원래 어원은 성안사람이라는 뜻이다. 귀족의 성안에서 살던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출현이 문제가 되는데, 이전까지는 개인의식이라는 것은 미분화된 상태로, 몇몇의 유한 계급이나, 지식인의 문학적감수성으로만 들어났었다. 대부분의 인구구성을 차지하고 있던 농노의 경우는 토지에 속박되어 있고 대부분이 같은 공동체의 구속아래에 속박되어 있었다. 유럽에서 (이를테면 특히 독일) 당시의 이들을 분석해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뚝 옆집 세계말, 빵집 아들의 둘째말 식으로 불렀다는 것인데, 오늘날 독일의 성은 대부분 빵집, 구두가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개인을 리얼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라고 생각해볼때 당시의 미분화된 개인을 추적해볼 수 있는 근거이다.

부르주아지의 출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자신의 분화된 직업으로 자신의 개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집단이 부르주아지가 되는 것인데, 귀족의 성안에서 넘쳐나던 부르주아지는 농촌에서 나와 도시를 이루기도 한다. 물론, 애초의 도시는 농촌의 장원제를 모방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직인-도제구조를 갖추게 된다.

여기서 촛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출현과 더불어는 경제적 개인주의이다. 여전히 신분적인 질서는 강력하였고, 그것이 사회적 교류 양식을 조정하였지만, 개인주의 자체가 자본주의와 맞물리면서 확대시킨 사회적 교류와 보다 특수하게는 새로운 계급, 부르주아와 귀족간의 상호작용의 조율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자본주의의 영향아래서 기존의 문화적 규범구조는 해체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 보편주의적 행위규준의 창설을 위한 노력이 바로 예법의 정교화로 드러나게 되었다. 부르주아와 귀족간의 갈등을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어감으로써 해결하게 된다.

경제적 개인주의가 당시 부르주아에게 개인의식을 갖게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지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게 되기 시작하는 부르주아지의 문화적 개인주의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행의 문제의 핵심이 있다. 르네상스 등으로 알려진 당시의 문화적 개인주의는 이미 발전하고 있었는데, 애초에는 사적인 영역을 가다듬는 실천이 묘하게도 그것의 대립적인 공적인 영역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루소의 [고백]류의 자신의 사적인 시간의 출판행위를 통한 공공화의 문제이다. 애초에는 개인과 개인의 소통의 욕구로서 출발한 이러한 문화적 행위들은 사적인 체험의 교류로부터 공적인 문화의 영역을 구성해내는 문화적 실천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놀랍게도, 사적영역으로부터 공적영역의 구성과정이 통신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명(literacy)으로써의 컴퓨터가 당시의 문자매체와 유사하게 위치지워져 있는 것도 발견된다. 특히나 이러한 사적영역의 조직화가 폭발적인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텍스트로는 불뿔을 높여라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불뿔을 높여라를 아이들이 학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의식을 한 청년이 하는 지하 방송을 통해 갖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이다. 또한 대만에서는 '대만의 소리'라는 해저 방송국들이 범람하고 있다. 1994년 8월 1천여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해저 방송국을 적발 폐쇄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대만의 소리'의 소유자인 슈통치는 숨겨놓은 백업 장비들로 다시 6시간만에 방송을 재개하였다. 주로, 국민당 정부의 부패, 핵발전소 건설계획, 금권 정치에 대한 토크쇼로 폭로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의 호응을 받고있다. 이런식으로 통신 네트워크는 새로운 공공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인구는 30만이 넘어가고 있고, 하나의 공공영역적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예민한 통신인이라면 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민감하게 포착한 것은 안기부고 여권 정치세력이다. 하지만, PC통신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쌍방향성, 개인의 사적인 담화가 자유롭게, 은밀하면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태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3000만의 인구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INTERNET 의 경우 기존의 공공영역을 무색하게 하는 징후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다 빠른 언론이 되고 있고, 일국가적 규제와 감시를 벗어나 특정 사건에 대한 폭로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상에 사이버 경찰이 생기기도 하고, 정치조직 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들이다. 국제사면위원회, 여성유권자 연맹, 남세자 보호연맹, 허리독스(인권정보기록 전산화 네트워크), IFEX(언론에 대한 탄압 고발) 등등이 그것인데, 시민단체 등이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초국가적인 로비력을 갖게 되면서 힘을 갖게 된 그룹들이다. 이들 외에도 정치단체도 있다. 실제 이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은 사이버 공간상의 사람들의 만남을 현실사회로 개입시키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들의 강점은 강력한 로버릭, 정확하고 빠른 지식/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행동력이다. 환경운동 등과 같은 로버릭과 행동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타는 것은 필연적이다.

■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인가

- (1) 진보진영의 DB를 갖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2)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은 가능한가?
- (3) 계몽주의적인 사고가 전제되는 싸움이어야 한다? - 소비자에서 유저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 (4) 정보생산자 운동 - GNU에 대한 소개... - 그들의 한계를 지적...
- (5) PC통신 사회의 시민사회 개입을 위한 제도 마련
- (6) 광범한 사적 영역의 조직화, 중소 BBS의 네트워크

■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점

- (1) 국가기간 전산망은 소프트웨어가 주도한다. 단지 대규모사업을 정부주도로 벌리면서 민간으로 넘기는 식으로 커미션 따먹는 식으로는 실현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폭으로 실현된다. 실제, 미국의 정보고속도로를 산점하는 것은 페이퍼뷰의 자본의 시간이 철저히 관찰되는 VOD(video on demand)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유저(소비자 개념의 수동적 표현보다는 유저가 맞다.)들의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 (2) 정보고속도로의 경우, 환상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실체는 현재 무료로 대학과 기업, 군, 개인을 연결하던 인터넷의 유료화경향과 다름이 아니다. 전화선이 느리다는 기술적 한계를 광섬유로 극복해 내면서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식으로 쟁긴다는 것인데, 문제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3) 아주 민감한 문제인 정보의 공유화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지적소유권이 바로 걸리는 이문제는 저항의 움직임이 이미 GNU의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문제에 동참해야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보의 공유 = 불법복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생산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행의 주체로서 포섭되어야 한다.
- (4)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케이블TV, 내년 내후년부터 본격화될 인공위성TV 등 새롭게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주는 매체에 대한 연구
- (5) 멀티미디어화의 경향속에서 멀티미디어의 단말기로서 TV가 주도하나 PC가 주도하나의 주도권싸움
- (6) 컴 업계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주와 최근의 정보고속도로를 둘러싼 표준전쟁...
- (7) PC통신의 사회적 영향력 등등의 고찰.
- (8) 통신과 관련된 검열(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있다.), 법률적인 싸움의 문제, 표현의 자유확보등의 문제. 통신공간이라는 사적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다듬는 실천이 필요

이들은 인터넷 상의 진보단체 (글쓴이 : 이혁)

1.5. 인터넷 상의 진보단체 (글쓴이 : 이혁)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의 모임, 동성연애자모임, 환경운동단체, 과학기술자들의 모임, 학술단체, 온라인 회사등 수많은 단체들이 통신에서 활동하고 있다.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비정부조직)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환경, 성, 과학기술, 남북문제등의 일국차원에서 극복되기 힘든 문제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를 넘어선 단체로 활동하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리고 있다. SING에서 주목하고 있는 단체는 CPSR(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EFF(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이다.

CPSR은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모임이란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에대한 컴퓨터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정책입안자나 공공에게 정보기술의 힘, 전망, 문제점들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1981년 핵무기 제조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것을 걱정하는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이래로 미국에 22개의 지부를 갖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회원을 받고 있다. 그들의 강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정부의 사회에대해 위험한 결정에 대해서 일반대중이 알고 토론하는 것을 지지하며 조장할 것이다.
- 우리는 기술의 영향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사실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기술에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갈 것이다.
- 우리는 기술이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풀수있다는 가정에 이의제기한다.
- 우리는 컴퓨터기술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적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재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미국 정부에 의해 고안된 정부가 개인 전화 도청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 이른바 'back door'가 내장된 디지털전화용 암호화 마이크로 칩인 클리퍼칩, 네트워크 사회,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4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CFP(Computers, Freedom and Privacy'95), 컴퓨터관련 질병,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정보화사회에서 윤리문제등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정부나 국회에 직접 항의 전화를 하게 하거나 자료집을 내고 있다. 그들의 인터넷 Web주소는 'http://www.cpsr.org'이다.

EFF는 표현, 사생활, 온라인 접근의 자유를 보호하기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4월 20일 인터넷에 올라온 그들의 온라인 뉴스인 EFFector Online을 보면 그들의 활동방식이 어떠한가를 잘 알 수 있다. 저번 공대저널에 소개된 미국의 통신검열법 S314에 대해 그 법을 입안한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들에게 항의전화 보낼것을 추천하고 있다. '당신이 2분안에 할 수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S314조에 관한 자세한 소개와 문제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알리고 함께 하기로한 단체들의 목록, 그리고 헌법소원 상황에 대해 나와있다. 그들은 행동주의(Act Now!)를 지향한다. 약 한달간격으로 EFFector Online이란 신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알려나가며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지침을 내린다. 그들의 Web 주소는 'http://www.eff.org'이다.

마지막으로 FSF는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GNU로 유명한 단체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복사, 수정 그리고 재분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그것을 하기위해 자본의 이윤증식과정을 거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슬랙웨어란 이름으로 국내에 널리 퍼진 리눅스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응용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바로 GNU Project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한다. 1995년 1월에 갱신된 GNU게시판(GNU Bulletin)을 보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새로운 운영체제로 Hurd란 것을 만들고 있다고한다. 그리고, 그들은 Copyright(저작권)에 반대하여 Copyleft란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저작권이 정당한 사회에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완전히 공개했을 때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고쳐서 만든 프로그램의 재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허가된다. 그것을 막기위해 만든 개념이 바로 Copyleft다. 그들은 FSF에 이익의 특정비율만큼 성금을 기탁하는 회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그 회사들의 free software 배포본을 살 것을 추천한다. 어쩌면 그들은 가장 순수한 컴퓨터프로그래머인지 모른다. 친구에게 자신이 개발한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이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최후의 해커'라고 불리는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GNU헌장을 발표하리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전혀 쓰지않는 유닉스 시스템구축을 했다.



## 1.6. 한국의 통신현실과 진보운동 (글쓴이 : 이혁)

외국의 경우 수천, 수만대의 컴퓨터의 연결망인 인터넷중심으로 통신이 이루어 지는 데 반해 한국은 천리안, 하이텔, 나우컴등 대형BBS를 중심으로 통신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BBS는 운영자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검열된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검열에 대해 BBS운영자들에게의해 사용자정보가 보호될 가능성이 전혀없다. 예를 들면, 천리안 현대철학 동호회 사십인 김형렬님의 구속과 희망터동호회 회원의 구속등의 사태에서 BBS운영자들은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그런 무기력함을 보였다.

우리나라 통신공간의 더 큰 문제는 BBS자체의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경우 학술, 경제, 정보등의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여러단체들의 힘이 쉽게 모여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BBS중심의 통신현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거의 없고 온라인을 통한 단체들의 연합도 불가능하다. 한국의 BBS중심의 통신은 자신의 선변잡기적인 내용을 게시판에 쓰는 글쓰기 문화와 대화방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통신이 단순한 사교모임, 선변잡기를 늘어놓는 모임으로 그쳐버린다.

그리고, BBS의 한계에 의해서 사용자모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보통모의 창립선언문을 보자.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은 정보통신속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속에서 하나의 자주적 모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용자모임'이라고 나와있다. BBS관리자라는 엄연한 주인이 존재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힘을 모아서 주인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는, 거기서 자주를 실현하는 시도로서 보통모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모임은 한계를 가진다. 앞에서 언급된 김형렬님과 희망터회원의 구속을 비롯한 통신공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정부에 대한 대응에 대해 진보적 성향을 띄는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 하이텔의 대중매체 모니터링 동회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나우컴의 찬우물등이 고민했으나 BBS안에 한정되어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93,94년 대학학생회 선거를 하면서 대학운동권내에서 BBS안에 ID를만들어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쓸데없는 논쟁을 통한 소모전으로 통신공간에 대한 매력도 사라졌는지 거의 그 활동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일방적인 선전선동의 공간으로통신공간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통신은 조지오웰의 1984에 나오는 일방적인 '텔레스크린'이 아니다. 통신은 쌍방향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다.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가 형성하는 전혀 새로운 공간속에서 진보적인 흐름'으로 통신공간에서 진보운동을 고민해야한다. 수동적인 대중에게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통신공간은 서로의 의견교환을 만들어 가는 매체가 될때 진정 '공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선전선동의 내용이 계속 바뀌어질때(FeedBack) 텔레데모크라시의 실현을 볼 수 있다.

내년이면 MSN등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이러한 BBS중심의 통신에서 인터넷중심 특히 사용하기편한 World Wide Web중심으로 그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 BBS중심의 닫힌 통신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다. 이제 통신을 진정한 하나의 공간으로 사고하고 통신의 쌍방향성이 주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는 진보운동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수천, 수만대의 컴퓨터의 연결망인 인터넷중심으로 통신이 이루어 지는 데 반해 한국은 천리안, 하이텔, 나우컴등 대형BBS를 중심으로 통신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BBS는 운영자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검열된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검열에 대해 BBS운영자들에게의해 사용자정보가 보호될 가능성이 전혀없다. 예를 들면, 천리안 현대철학 동호회 사십인 김형렬님의 구속과 희망터동호회 회원의 구속등의 사태에서 BBS운영자들은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그런 무기력함을 보였다.

우리나라 통신공간의 더 큰 문제는 BBS자체의 한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경우 학술, 경제, 정보등의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여러단체들의 힘이 쉽게 모여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BBS중심의 통신현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거의 없고 온라인을 통한 단체들의 연합도 불가능하다. 한국의 BBS중심의 통신은 자신의 선변잡기적인 내용을 게시판에 쓰는 글쓰기 문화와 대화방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통신이 단순한 사교모임, 선변잡기를 늘어놓는 모임으로 그쳐버린다.

그리고, BBS의 한계에 의해서 사용자모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보통모의 창립선언문을 보자.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은 정보통신속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속에서 하나의 자주적 모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용자모임'이라고 나와있다. BBS관리자라는 엄연한 주인이 존재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힘을 모아서 주인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는, 거기서 자주를 실현하는 시도로서 보통모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자모임은 한계를 가진다. 앞에서 언급된 김형렬님과 희망터회원의 구속을 비롯한 통신공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정부에 대한 대응에 대해 진보적 성향을 띄는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 하이텔의 대중매체 모니터링 동회회,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나우컴의 찬우물등이 고민했으나 BBS안에 한정되어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

## 1.7.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변화 (글쓴이 : 안유석) : 광속의 상거래 CALS(Commerce At Light Speed)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에는 '시장의 무정부성'이 있다라는 말을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한계일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이라는 것은 그 속성자체가 고립된 노동의 산물이라는 맑스의 서술을 주목해보자. 고립된 노동시간을 투여한 상품은 생산수준에서는 정보가 감춰져 있다가 시장을 통해서 교환된다. 시장에서는 경쟁에 따라 어떠한 상품은 팔리고 어떠한 상품은 팔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확실한 구별은 상품이 생산되는 공간과 소비되는 공간의 명확한 구별을 전제한다. 시간적으로도 먼저 생산되고, 후에 시장을 통해서 평가되어 팔리게 된다. 전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이 소비하는 대다수의 것은 공동체 자체내에서 해결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 맞물려 있는 곳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품의 교환은 이질적인 공동체 사이에서나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시장의 무정부성에 의해서 어떠한 기업은 성장하고 어떠한 기업은 몰락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국가경제, 혹은 세계경제에 확대되면 시장의 무정부성은 여러가지 심각한 형태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전세계적인 공황이라든지, 좀더 큰 기업, 혹은 선진국의 독점경쟁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점점더 고립된 노동의 산물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많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 그러한 협력은 여러가지 표준의 형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표준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여러나라의 기업이 협력하여 상품을 만들게 된다. 최근에 말이 많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이러한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또한, 자동차는 생산한 후 소비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된 후 생산된다. 즉, 광고라든지, 마케팅, 경쟁사에 대한 분석의 여러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에 이끌려 생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소비에 이끌린 생산, 계획된 생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생산은 이제 CALS를 통해서 달성된다. CALS는 처음에는 미국의 군에서 지식에 대한 처리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이후에 여러가지 표준에 의해서 전자적인 자료,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의 채택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군에서의 효율성이 입증된 후 상무성이 적극 받아안아서 미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하며, 정부조달사업등을 CALS의 표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의 막대한 조달사업을 중심으로 CALS의 논의는 시작되었지만, 기존의 기업의 리엔지니어링 붐과 맞물리면서, 또한 여러 산업표준이 CALS를 통해 총화되어, CALS는 그 의미와 범위가 3번의 변화를 걸쳐 지금은 광속의 상거래(Commerce at Light Speed)라고 불리며, 포괄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CALS는 미국의 전략으로서 전세계적인 파스아메리카나의 재건을 자신의 탄생의 비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전략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최근의 기업의 리엔지니어링 붐, 감원, 자동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본의 전략이 자신의 성장의 모습으로서 CALS를 채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형태의 자동화를 통해서 기업은 시장의 유연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조직형태를 변화시킨다. 그런 자동화의 정점으로 CALS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CALS에 의해서, 상품은 그 자신의 출생과 종말의 전과정에서 예측가능하고, 고립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메카니즘을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생산의 기반이 되는 것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개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키게 된다. CALS의 통합데이터베이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CALS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의 생산,분배,교환,소비의 개념을 바꾸어 놓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상품의 생산, 분배,교환,소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concurrent)으로 이루어진다. CALS는 표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일단 표준의 합의가 도출된 후는 인터넷등 분산데이터통신 인프라를 통해 광범한 분산 DB를 이루게 된다. CALS를 통해서 전자적 문서교환(기술정보, 제품디자인, 마케팅 정보),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등이 광범위하게 퍼진다.기업이 자신의 내부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형태는 시장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므로 상당부분 자신의 부분을 떼어서 다른 기업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기업의 구조도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전에는 CALS와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CALS를 이용하던 기업들이 CALS를 통해서만 기업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CALS를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난점이 존재한다. 개별기업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정보를 쉽게 내놓겠느냐가 문제이다.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간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독점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볼 때 CALS가 제대로 되기 위해선 당연히 개방성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개별기업의 정보를 보장해주던 지적소유권 문제는 정보의 공유에 있어 형식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계급구성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육체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에서 자동화를 거쳐 점점 이러한 표준의 번역, 지식정보의 처리를 자신의 업무로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점점더 이러한 사회화된 지적 노동자는 산업전반의 경영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금융의 발달로 인해 부르주아지는 세계화하며, 구체적인 기업의 경영과 형식적으로 관계하며, 금융에 의한 추상적 권력을 가지게 된다.



### 1.8. 텔레데모크라시 (글쓴이 : 오병일)

이제 선거 때마다 PC통신을 또하나의 선전/선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일반화 되었다. 서울대의 학생회선거에서 상용통신망의 대학계시판을 통해 정책선전과 의견수렴을 시도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각 대학에서 선거에 PC통신을 활용하고 있다. 학생회선거 뿐만 아니라,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는 PC통신을 통한 유세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일부 활용되기도 했었다. 또한 김덕룡, 노무현, 이철 등 몇몇 정치인들이 통신망내에 포럼을 만들어 유권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물론 아직은 통신인들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방식도 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이라기보다는(비록 명분은 그러하더라도) 자신의 정책에 대한 선전/선동, 즉 기존의 선거활동의 통신망의로의 확장(별로 영향력은 없다라도 첨단매체를 활용한다는 명분을 얻기위한, 또는 통신망의 주요 시민인 신세대에 접근하기 위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은 정립되지 못한 이런 새로운 공간에서의 작은 움직임이 이후의 텔레데모크라시의 맹아를 보여주는 것일까?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이 단지 첨단에 대한 즉각적 반응일지라도, 이론적으로 텔레데모크라시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통신이라는 매체의 새로운 특성, 즉 '쌍방향성'이다. 이전의 정치가 대중매체의 시대에 매체를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조작되는 정치, 그에 상응하여, 대중(유권자)과는 유리된 대중의 대표자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 바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면, PC통신은 그 효율성(컴퓨팅 능력의 향상과 고속의 통신에 의한)과 쌍방향적 특성에 의해,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여러 방안이 국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정치인과의 직접적 대화, 계시판을 통한 여론수렴, 전자투표 등이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즉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실질적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단지 매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을 넘어 텔레데모크라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정립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즉, 단지 정치인이 유권자와 대화할 수 있는, 혹은 시민이 정치권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는 기존 정치권/유권자의 이분법을 유지한 채,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자는 것, 혹은 그런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통신망내에 계시판을 개설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것을 폐쇄한 것에서 드러난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권/유권자의 이분법 속에서는 아무리 통신이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의 권력유지/확보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의견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결국 자신은 유권자이며, 자신의 의견은 고작 독자투고한 정도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인들을 PC통신을 통한 보다 원활해진 소통관계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히 반영하는 선한 의지의 인간으로 보는가?

통신의 쌍방향적 특성은 물론 주목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한 시민들의 직접정치(탄원하는 수준이 아닌)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쌍방향적' 특성이라는 것은 단지 데이터가 양쪽으로 오고간다는 이상의 수평적 권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는 이러한 권력관계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망에서의 활동양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진보진영 역시 통신망을 하나의 정치적인 활동의 장으로 사고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선전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기존 활동의 단순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새로운 매체에 맞는 활동방식을 정립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PC통신(혹은 그것을 포함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리는 고유한 소통방식의 창출이 절실하다.

### 1.9. 인터넷상의 주목할만한 사회단체 (글쓴이 : 이혁)

#### ■ 들어가며...

인터넷상의 진보단체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막상 자료를 모으고 나니 몇 가지 고민이 생겼다. 첫째는 '진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을 진보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까? 경실련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보'의 범위는 개인의 가치문제라는 것이다. 둘째는 너무 많은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상의 모든 진보적 단체를 조사하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단체들이 새로 만들어지며 없어지고 존재하는 단체들의 자료도 계속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상의 주목할 만한 사회단체'란 제목을 정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인터넷의 바다를 항해하면 서 관심을 가졌던 단체위주로 쓰기로 결심했다.

#### ■ APC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얼마리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한마리의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다."란 격언이 있다. 인터넷 상의 진보단체들에 대해 소개하기보다는 APC만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지 모른다. APC는 인터넷상의 진보단체들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APC에 접속하면 인터넷상의 대부분의 진보단체에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여러사회단체들은 생간이래로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1987년 영국의 GreenNET와 PeaceNet, Econet, ConflictNet, ConflictNet, LaborNet으로 구성된 IGC (Institute for Global Communications)는 서로의 자료와 회의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는 무척 성공적이었다. 1989년에는 스웨덴의 NordNet, Canada의 Web, 브라질의 AlterNet, 니카라과의 Nicaraoo 위의 두네트워크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고, 1990년 봄에 새롭게 출현하는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발전과 운영을 돕기위한 재단으로 APC가 만들어졌다.

1995년 8월 현재 18개의 네트워크의 연합체로서, 133개국에서 31000명의 활동가, 교육 자, NGO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오테자네이로에서 열린 UNCED의 Earth Summit부터 9월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차 World Conference on Women에 이르기까지 UN의 conference에서 공식적인 UN과 NGO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역할을 해왔다. APC는 현재 UN의 1등급 자문기관으로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회와 환경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모임들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상용 컴퓨터네트워크, 팩스, 전화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모임들의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협력하기위해 노력한다. APC는 세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드는 데 전념한다.

APC는 정보빈자와 정보부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APC의 남부와 북부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정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APC멤버들은 남부와 남부사이의 정보흐름을 증가시키기 기위해 남부에 있는 50개 협력 시스템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기술의 사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줄이기위해, APC는 여성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과 여성의 NGO들이 정보와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PC의 멤버로서 IGC는 접근가능한 컴퓨터네트워크 도구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지속가능성, 인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비폭력적 분쟁의 해결, 사회적 경제 정의, 여성의 평등성을 확장하며 고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GC의 Progressive Directory안에는 PEACENET, ECONET, CONFLICTNET, LABORNET, WOMENSNET이라는 다섯개의 네트워크가 있다. PeaceNet은 인종주의와의 투쟁, 인간의 권리, 사회적·경제적 정의, 평화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일하는 개인과 조직을 위한 컴퓨터네트워크이다. 또한 군비축소, 경제적 정의, 이민자의 권리, 감옥체계, 토착민 등에 대한 현재의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고이다. APC의 국제적 협력자를 통하여 중동, 발틱해, 예전의 소비에트 영연방, 중앙아메리카등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요뉴스, 행동과 사건들을 알리고 있다.

현재 PeaceNet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50주년 기념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950년 8월 6일, 8일에 미국정부에 이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21만명이 죽고, 13만명이 방사능 오염으로 죽었다. 그후 50년이 지난 올해, 냉전이 끝난 지 6년째되는 올해에도 미국과 세계열강은 핵 무기를 아직도 제조하고 있다.



PeaceNet이 현재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군비축소이다.

EcoNet은 환경의 보전과 지속을 위해 일하는 조직과 개인들을 돕고 있다. 현재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에 대한 내용이 주요 Issue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환경관련단체들의 DB를 제공한다.

ConflictNet은 분쟁의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ConflictNet은 현재의 법률제정, 협의회, 행동의 영역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원칙적이고 시사적인 유용한 의견을 포함한 분쟁의 해결책에 대한 현재의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의 이벤트로 SPIDER ( Society of Dispute Resolution Professionals )에서 주관한 7월 27,28일 양일간 걸쳐 열린 '분쟁속의 어린이'라는 심포지움에 대한 소식이 올라와 있다. 이 심포지움은 최초로 매년 열리게 되는 국제적인 미성년자의 권리를 위한 조정협의회이다.

LaborNet은 노동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이다. 전세계적인 노동운동단체들여기서 만나볼 수 있다. 자세히 조사한다면, 한국의 노동악법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의 사회주의자단체에서는 한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니 LaborNet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입법조문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WomensNet은 여성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정보의 공유, 방송, 협력을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여성, 활동가, 조직들의 세계적인 통신 네트워크이다. 컴퓨터 네트워크 도구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증가시키기위해 노력 하며 그들이 기술적 보조와 훈련을 통해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돕고 있다. 여성, 활동가, 조직들의 생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가상 정보에 접근권을 도와주며, 그들의 일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베이징에서 열리는 NGO회의에 관한 소식을 자세히 알 아볼 수 있다.

인터넷 상의 진보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 다섯개 네트워크를 통하면 거의 대부분의 단체에 접속할 수 있다. 이런 단체와는 별도로 공동의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에서 APC에 참가한 네트워크를 보기는 힘들다. 현재 01410번으로 접속가능한 참세상 같은 네트워크의 APC참여를 기대해본다.

### ■ CPSR (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

CPSR은 몇년전에 이성직씨에 의해 강령이 번역되면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단체이다. CPSR은 미국내에서 대중과 정책입안자에게 정보기술의 힘, 전망, 문제점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내 시민운동단체중의 하나로서 CPSR의 멤버들은 정보기술의 활용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과 그런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981년 컴퓨터가 핵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걱정한 컴퓨터 과학자들의 그룹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정보 기술 전문가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맹으로 발전했다.

미국에 22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곳곳에서 비슷한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한 물리학 자들의 모임'등 비슷한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부는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모에 있다.

CPSR은 다섯개의 원칙을 정해놓고 모든 프로젝트는 그 원칙하에 수행되고 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공공의 토론과 의미있는 개입을 지지하고 촉진한다.
- 우리는 사회적 기술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사실적인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고치기위해 일한다.
- 우리는 기술 혼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에 반대한다.
- 우리는 국내와 국외 모두의 컴퓨터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조사한다.
- 우리는 정보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장려한다.

CPSR은 미국내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토론과 효율적인 행동을 위한 촉매역할을 하려하고 있다. 그 주 관심사는 '국가 정보 고속도로 건설',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일터에서의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의 위험과 신뢰성'이다. 현재 초정보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Digital통신의 암호화 칩의 미정부표준인 Clipper칩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 칩에는 정부에 의한 검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른바 'back door'라는 회로가 내장되어있다. 또한 전화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Caller ID의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PSR은 많은 정책에 대한 대안에서 국가의 이익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중과 정책입안자에게 호소하기위한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제한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국제적인 NGO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미국내의 사회단체로 보여진다. 하지만, CPSR이 잡고 있는 다섯가지 원칙은 여전히 옳으며 한국의 과학기술운동에서도 참고 되어야할 것 같다. 소련의 과학기술 혁명론(STR론)의 때늦은 유입(?)으로 한때 이공 계열 학과에서는 과학 기술 학회의 활동이 활기를 띄었으나, 자본주의와 생산력경쟁을 벌이던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몰락이후 한국의 과학기술운동도 정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과학·기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정치적 해결은 사회에서 물리적 힘에의해서 결판이 난다. CPSR은 시민의 관심을 통해 그런 물리력을 가질려는 사회단체이다.

위의 문제 말고도 컴퓨터 기술에 대한 여성, 인종의 불평등등 넓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 EFF (Electirc Frontier Foundation)

World Wide Web의 등장은 통신의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통신은 개인과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준다. 하지만, 이런 통신은 통치와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물론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기존질서에 반하는 몇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아이들과 원하지 않는 성인들이 어떻게 성적인 자료에 공개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인가? 국가와 국가를 넘 나들기에 어디에도 있지않고, 모든 곳에도 있을 수 있는 정보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사적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육설이나 폭언등의 유쾌하지않은 표현들로부터 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전통적인 사회적 틀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새로운 매체에 맞는 입법을 해야할 것인데, EFF는 이런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1991년에 설립된 압력단체이다. EFF에서 밝히고 있는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일한다. 온라인에서의 시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재판에서 국가에의해 고소 당한 개인을 후원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몇년동안 하 이텔, 천리안에서 몇건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인해 구속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서점에 널리 퍼져있는 공산당선언을 올린 이유로, 내외통신에 의해서 국내 방송을 탄 김일성 신년사를 게시판에 올린이유로 몇명의 젊은이들이 잡혀가기도 했다.

공산당선언을 올려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건의 경우 몇달전에 무죄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박홍에 의한 주사파 파동이 한참 휩쓸고 있을 때 검찰 총장의 무한한(?) 직권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은 전혀 원칙이 존재하지않는, 행정부의 시너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시삽에의해 무제한적으로 무원칙적으로 글이 찢리는 대한민국BBS와 비슷한 BBS가 미국내에도 존재하는 모양 이다. 그런 BBS들에 대해 삭제의 원칙을 정하고 그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도 EFF의 일종의 하나이다.

둘째, 네티즌의 이익을 대표한다. 사생활 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의 원칙을 정하고 네트워크 제공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PSR과 함께 클리퍼칩을 철회시키기위해서 노력한다. 무척이나 세계화를 부르짖는 남한의 안기부 에서 신용정보의 암호화 조차 막고있는 대한민국의 후진 상황에 무척 대비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오픈 플랫폼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하는 정책을 이끌어내기위해 노력한다. 학술단체나 연구 단체의 연구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열려진채로 공개 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정부에의한 네트워크의 개발을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한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미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적인 공동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일랜드, 캐나다, 노르웨이, 캐나다등 세계곳곳에서 EFF가 생기고 있다. 많은 NGO단체들과 연합하여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남한에서 정보통신윤리규정이 만들어지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인터넷의 검열을 허용하는 S.314조가 입안되었다. 현재 이런 입법과정에 철회 압력을 행하고 있다. 입법을 추진하는 상원의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널리 알리고, 항의 팩스와 전화를 보내기를 개인에게 권고하고있다. 개인의 조그만한 행동이 '세계를 바꾼다'는 말로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EFFector Online을 주기적으로 통신상에 배포하여 관련 정보의 공유와 해결책을 알리고 있다. 7월 21일에 통신망에 올라온 EFFector Online을 보면, EXON과 COATS에 의해 입안된 위헌적인 통신예절에 관한 법안의 추진현황,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의 목록, 항의전화, 팩스, 메일을 보낼 주소와 항의문구,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문구가 나와있다. 그들의 Web Page에 'Click This Button to change the world'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네티즌의 이해를 대변하는 압력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검열을 허용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규정이 명백한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범하는 위헌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회 단체가 없는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CPSR, EFF 등의 많은 단체들이 그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CPSR을 보고있노라면 한국의 통신관련단체의 연합의 출현이 아쉽게 느껴진다.

### ■ LEAD OR LEAVE

국내에 이미 책으로 소개되어진 "이끌어라 그렇지못하면 떠나라"는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를 세대간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무척 큰 X세대의 정치조직이다. X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고 활동가임을 주장한다. 더이상 젊은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방관자로 있지말고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하는 단체로서 현재의 사회적, 환경적인, 경제적인 위기를 세대간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다음세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그 짐을 넘기는 것을 세대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그 것을 막기위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라!", "범죄를 예방하라!", "AIDS를 막아라!", "사회적인 안전을 만들어라!", "탈냉전시대에 맞는 군대를 고안하라!", "교육을 알맞게 고쳐라!", "게이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라!", "집없는 이를 없애는 것을 도와라!", "선택의 자유를 달라!", "미국의 부채를 줄여라!", "알맞은 의료보호제도를 고안하라!", "우리의 정책을 다시만들어라!" Lead or Leave는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100가지 문제가 미래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일주일 5분간 주위사람들과 토론하라!" 등의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Home Page를 통해 제시되는 토론의 내용은 'CNN NEWS', '통신예절법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동참', '부채를 줄이기위한 게시판' 등이다.

김영삼정부가 세계화를 통해 국가이기주의를 호소하는 것처럼 국가이기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Lead or Leave는 미국내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이익이란 명제에 호소한다고 느껴질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계급간의 갈등이 아닌 세대간의 갈등으로 보고 있는 것은 조금 특이하다. 롭 넬슨과 존 코원이 93년초 X세대의 정치 참여를 외치며 결성을 시작한 이후 짧은 시간에 100만이 넘는 회원을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 성장한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다. 남한에서 통신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10대에서 30대까지 주로 젊은 세대인 것을 미루어 볼때, 남한에서의 이러한 단체의 성립을 기대해본다. 진보적 시민정당 추진 움직임에 통신을 통한 젊은 세대의 힘이 합쳐지기를 꿈꿔본다.

### ■ FSF(Free Software Foundation)

GNU현장은 이미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져있다. 최후의 해커로 알려진 리처드 스톨만이 GNU현장을 작성한 이후 GNU는 상용 Unix보다 더좋은 Unix시스템을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저작권이 사회에 속하는 Copyleft란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GNU의 활동을 돕기위해 생긴 재단이 바로 Free Software Foundation이다. 사용자들의 기금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방식은 현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보여준다.

Free Software Foundation의 'Free'란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Look and Feel에 관한 소송이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LPF(League for Programming Freedom)와 협력하여 대항하고 있다.

현재는 Phil Zimmermann의 소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재정적인 보조나 정부에 대한 압력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냉전의 산물로서 암호화 기술의 외국유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Phil Zimmermann이 PGP(Pretty Good Privacy)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이 범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의해 고소당했다. EFF, CPSR 등의 사회단체들은 시민의 자유의 측면에서, FSF, LPF는 프로그래밍의 자유란 측면에서 Phil Zimmermann의 소송을 돕고 있다.

FSF는 일년에 두번 GNU BULLETIN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개발현황, GNU Project 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 FSF에 기금을 낸 단체의 소개, 지적소유권에 반대하는 흐름인 OnlineBook Initiative등의 소개등을 하고 있다. 현재 개발중인 운영체제인 Hurd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얼마전에 컴퓨터 통신망의 해킹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있었다. 컴퓨터 통신을 통해 청와대를 사칭했다가 불잡힌 사람 언론에서 해커라고 표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천재적인 해커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조금 아는 범죄자일 뿐이다. 해커란 알박한 지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시행 착오를 거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탐구하는 -hack란 뜻은 60 연대 MIT의 은어로서 아무런 이득이 생기지 않은 일에 그냥 재미로 몰두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에 대한 공헌은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GNU현장의 한 문장은 그들이 이 냉혹한 자본의 무한 경쟁의 시기에 어린이 같은 순수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게 느껴진다. 운영체제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Hurd는 그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실정이고, linux등의 Free Software는 시스템관리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상용프로그램과의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개인 생산자들의 의식주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 ■ GREENPEACE

그린피스는 환경운동단체로서 널리 알려져있다. 핵발전소를 점거하고 핵폐기물 운반을 방해하고 하는 등의 사건을 일으켜 국내외 뉴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위성을 이용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보도를 하기로 무척 유명하다. 그린피스는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인 대립을 통해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드러내며 환경친화적이고 평화로운 미래로 이끄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력한 실천적 단체이다.

위성통신 설비가 갖추어진 그린피스의 선박(Rainbow Warrior Sails)은 세계곳곳에서 환경관련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는 프랑스와 중국의 핵실험문제가 그린피스의 핫이슈이다. 프랑스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소식을 그들의 Web Page에서 접할 수 있다. 핵실험장의 자세한 소식과 핵 실험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결과에 대한 논문도 올라와 있다. 그들의 활동결과 프랑스 정부는 정부의 체면을 유지한채 핵실험을 포기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수많은 환경관련단체에 대한 접촉을 제공하고 있다. UN의 사회보장개발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환경 운동단체를 여럿 그린피스의 환경 관련단체목록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의 활동방식은 EFF등의 시민단체와 같이 프랑스나 중국정부로 항의 팩스나 전화를 보내기를 권고하면서 그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알리고 있다. 최근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최우주군이 '입시교육의 위헌성'을 지방사회단체에 호소한 것을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의 압력이 가해지자,통신망을 통해서 그 고등학교에 항의전화나 항의팩스를 보내자는 움직임이 하이델이나 나우누리에 있었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바로 외국 사회단체의 활동의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 SIERRA CLUB

그린 피스와 비슷한 환경단체로 알려진 Siera Club은 'One Earth, One Chance'란 모토아래 주로 미국내에서 환경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Sierra Club의 역사는 1892년으로 올라간다. 자연을 무척좋아한 환경보호론자인 John Muir를 비롯한 야생에 대한 열정을 가진 몇명의 사람들이 개인인 혼자 힘으로 자신들의 보물인 자연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모여 미국의 야생 자연을 보호하기위한 모임을 만들면서 비롯되었다. Sierra Club은 자연을 탐험하며 즐기고 보호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을 확고하고 효과적인 실천으로 옮기게 만들었다. 1990년대의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했음에도 '깨끗한 공기를 위한 기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1991년에는 알래스카의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Johnston-Wallop 에너지기금에 대한 입안을 막았다. 1994년에는 8년간의 노력끝에 캘리포니아 사막 오염 방지법을 입안시켰다.

위의 활동에서 우리는 Sierra Club은 미국내에서 환경사안에 대한 법안에 대한 로비를 하는 사회단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 활동방법은 EFF의 방법과 무척 동일하다. 생긴지 100년이 넘는 사회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내 사회운동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다. 무척이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느껴진다.

### ■ DSA(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

DSA는 미국내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자 조직으로 SI(The Socialist International)의 중요한 미국내 지부이다. DSA회원은 미국사회와 정치에서 미국내 사회주의자의 존재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깊은 노력은 수단과 목표로서 우리의 사회주의의 근본이다. 그들은 행동가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뿐만아니라 경제, 성, 문화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의 가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재구성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DSA의 미래상은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선택과 관여에서 민중들의 목소리가 실제적인 힘을 가지는 사회이다.

DSA는 NPI( the National Political Committee )의 최고의 정치적 지도부로 역할한다.

DSA는 2년임기로 각 NPI가 맡고 있는 지역의 크기에 비례해서 선출된 24인의 NPI의 대표로 구성되며 NPI는 회원의 절반이상이 여성이어야하며 6명 이상의 유색인종을 포함해야한다. 정책적 사안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보건, 복지, 고용문제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newsletter나 게시판을 통해서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NPI에서는 매주토요일 오후시간동안 회의를 가진다. 그리고,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을 계간으로 출판하고 있다. 올 봄에 출간된 책에는 '환경운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구와 정의', '추기 막시스트 좌파', '도시들과 환경운동', '일자리와 환경', '세계적 노동·환경운동 에 대한 리뷰', '통신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 '사회주의의 관련 책 리뷰', '캐나다의 좌파'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문을 하면 책을 받아볼 수 있다.

DSA는 생태사회주의를 통한 새로운 좌파운동을 길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운동은 유럽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핵개발에 찬성함으로써 사회주의 운동과 결별하게 된다. 하지만, DSA는그것을 사회주의자들의 오류였다고 본다.

남한에서 생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몇몇 이론가와 실천가의 모습이 DSA가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DSA는 UN을 새롭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UN을 완전히 재구성함으로써 세계정부를 통한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문제는 전세계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의 운동은 현실에 타협한 운동은 결코 아니다. 21세기에서의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의 방법을 모색하는 그들의 글에서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이 찾아온 현실 사회주의의 패배의 원인을 냉철히 분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한발한발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태사회주의와 통신상의 소통을 고민하는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단체 Bad Subject도 DSA와 함께 눈여겨 볼만하다. 역사의 종언은 결코 없다. 역사의 마침표는 다음 역사의 문장을 시작하기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DSA Web Page 글들을 읽으며 하게된다.



### ■ 나오며...

이상으로 그동안 개인적으로 혹은, 정보연대 SING의 활동을 하면서 주목해온 단체들이다. 인터넷에 있다고 진보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모임부터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의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자본은 무의식중에 더 앞서나가 그 공간에 기존사회질서를 그대로 관철시키기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고 현재 몇몇 곳에서 그 대결 지점이 생기고 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몇달전에 와우와우에서 한 '국가의 소멸'이란 다큐멘타리를 본 적이 있다.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UTOPIA IS NOWHERE"이란 자막은 며칠동안 기억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만날 수 있는 공간, 바로 그곳이 유토피아가 아니겠는가! 유토피아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유토피아는 통신이다'란 말을 그 방송프로는 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 새로운 정보 기술의 이용은 세계경제체제의 위기에 대한 서구선진 국가들의 반작용으로 도입된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대계의 자본주의는 생산의 중심영역을 '노동'에서 '정보'로 옮겨가고 있다. 외연적 생산의 시기에서 내포적 생산의 시기로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 기술자의 소유였던 과학기술에 특허권을 붙여 '과학기술' 자체를 상품으로 하고 있다. 예술가의 창작또한 '문화상품'이란 미명아래 팔리우고 있다.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된 '지식'을 지적소유권이란 이름아래 사유화·독점화 하려고 있다.

하지만, 절망은 이르다.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노동자, 지식인, 예술가가 하나되어 새로운 사회질서를 꿈꿔 볼 수 있지않는가? 그러한 사회단체들의 모습을 인터넷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싸움은 현실에서이다. 문제는 어떻게 현실에서 서로의 힘을 모으고, 연대하여 실질적인 사회적인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하는 방법이 남는다. 앞에서 소개 한 단체들이 사안에 따라서 연대하여 활동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적이다. 통신 자체의 특성또한 우리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자본은 흐름을 막고 거기서 이윤을 챙기고 있지만, 통신은 흐름을, 바로 쌍방소통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개인과 개인이 Communication을 통하여 만나고, 거기서 Community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사회적인 힘으로 전환해낸다면 후기자본주의가 아닌, 우리 모두의 Utopia인 Communism을 꿈꿔볼 수 있지 않는가?

### ■ 첨가 : 소개된 단체들의 인터넷주소

- CPSR <http://www.cpsr.org/dox/home.html>
- EFF <http://www.eff.org/>
- APC <http://www.igc.apc.org/>
- DSA <http://ccme-mac4.bsd.uchicago.edu/DSA.html>
- Lead or Leave <http://www.cs.caltech.edu/~adam/lead.html> Greenpeace <http://www.greenpeace.org/>
- SierraClub <http://www.sierraclub.org/>
- FSF <http://www.cs.pdx.edu/~trent/gnu/>

▶ CONTACT

## 1.10. 정보와 진보운동 (글쓴이 : 오병일)

### ■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보화사회'라고 진입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분석할 것이며, 이사회 속에서의 '정보운동'의 위상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데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자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것 역시 그들의 이론적 지평 위에서 '정보'가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뿐이지 않은가? 또한 (다른 개념 역시 그렇지만) 정보 역시 갈수록 그 내포가 깊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보에 대한 어떤 완결적인 규정을 먼저 내리기 보다는, 결국 이 글 전체를 통해서가 되겠지만, 우리가 '정보'를 사용하는 맥락을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아직 사회적으로 '정보운동' - '정보운동'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보문제와 관련된 제 모순의 해결을 위한 진보적인 흐름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필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의 위상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정보공유운동이나 통신운동 등으로 협소화되어 얘기되거나 혼재되어 쓰이기 때문이다.

### ■ 정보운동은 부문운동이 아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정보운동'을 하나의 부문운동(혹은 부문운동들의 총합)으로 보지 않는다. 즉, 현대사회의 특수한 '이슈'로 보거나, 통신공간의 민주화 운동 등으로 한정시키지 않는다. '정보운동'은 새로운 생산/사회관계의 창출을 위한 변혁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존 변혁이념의 새로운 공간(Syberspace?)으로의 확장으로도 보지 않는다. 정보화사회에서도 결국 자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만을 확인하는 기존의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통신공간은 운동공간의 양적 확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현실 모순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해명이며, 우리는 그 정점에 정보문제를 둘러싼 제반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 정보화 사회

미래의 권력은 돈이 아니라 정보를 소유한 자에게 있다는 엘빈 토플러로부터 '손끝에서 모든 정보를' 보장하는 빌 게이츠에 이르면서, 이제 정보는 이 시대의 상징이 된 듯 싶다. 정보상품(기술/지식 자체가 상품이 되는 형태를 비롯하여, 정보화사회의 물적인 근간이 되는 각종 뉴미디어, 그리고 영화/음반/SW 등 수많은 문화상품들)은 6-70년대의 자본축적의 위기를 겪으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이제 현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고 있으며, 또한 생산영역을 비롯하여 정치/사회/문화 등 제 영역의 구조를 재편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문제를 필두로 한 각국의 경제위기는 전세계적인 무한경쟁과 남북문제의 심화라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환경/여성/인종/인권/지역분쟁 등 잠재되었던 모순관계들이 일제히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들이 정보화사회의 풍요로움 속에서 해소될지는 의문이지만, '정보문제'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모순을 전개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 ■ 정보의 상품화

구체적인 제 현실에 대한 비판은 아래로 미루고 논리적인 지점부터 먼저 간단히 짚어보기로 하겠다.

이 시대에 '정보'는 상품이다. 아니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장 운동(?)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상품/화폐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상품은 타인을 위한 사용가치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교환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상호의존하지 않는 사적노동의 생산물만이 서로 상품으로 대립한다. -[자본론](비봉), 칼 마르크스- 따라서 지주를 위한 노력봉사나 자급자족을 위해 생산된 물건이나 공장 내에서의 이동하는 반제품 등은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고립된 생산자들은 상품을 통해서만 서로 관계를 맺으며, 교환되는 상품의 가치가 드러나는 형태, 즉 가치형태의 일반적 형태로서 화폐가 출현한다. 일반적 등가형태로서의 화폐는 자립화하여,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고리대에서 출발하여 자기 자신의 무제한적 증식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신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낳는 특수한 상품인 '노동력'을 발견함으로써 자본으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상품/화폐관계 이상이며, 상품소유자가 평등하게 대면하는 시장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한 사회에서 일반적 등가형태로서 화폐가 정립되기 위해서, 화폐가 지불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신용(?)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종의 권력관계가 전제 되어야만 하며, 그것의 정점에 국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먼저 하는 것은 정보의 상품성 논의를 통해 현 생산관계에서의 모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정보는 데이터(이 데이터 역시 다른 수준에서는 정보일 수 있다)를 가공하여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 - 정보 information은 inform + formation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즉, '알리다'와 '형태화'의 합성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매체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형식으로 가공한 것이다. '소통할 수 있는 형태'라는 말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어떠한 매체(언어, 문자, 그림, TV...)를 매개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언어, 문자, 인쇄술, 대중매체에 이어 컴퓨터/네트워크에 이르는 매체의 발달은 지식의 축적/저장과 인간들 상호간의, 그리고 사회들간의 교류를 촉진시켜 왔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이룩된 정보의 디지털화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고속화는 가히 혁명적인 의의를 지니는데, 정보의 저장/변형/복사/이동을 극도로 용이하게 한 것이다.

'정보'는 본질적으로 상품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첫째, 정보는 어느 상품과 같이 소비됨으로써 그 가치가 소멸되지 않으며 - 물론 정보의 '시간성'이라는 문제는 있다. 자신이 정보를 취득한 순간 이미 그것은 정보가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사회적으로 무의미해지는 성질의 정보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도 계속되는 소통과정 속에서, 변형과정 속에서, 혹은 축적/저장되었다고 이후에도 정보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할 때, 소비되면서 그 물질적 형태가 소멸하는 여타 상품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 소비과정 자체가 정보의 생산과 통일되어 있다. 둘째,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자신에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무제한적인 복사가 가능한 현대의 정보존재 양식에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세계, 본질적으로 매체/네트워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고립된 생산자를 전제로 하는 상품의 규정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광범하고 고속화된 네트워크의 발달은 교환을 위한 시장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는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상품이 될 수 없는 정보가 상품으로 버젓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애초부터 정보가 상품이었던 것은 아니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식은 소수 지배계층에게 독점되어 있었으며, 기술은 후계자에게만 전수되는 식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대중교육과 대중매체의 발달에 의해 지식의 대중화와 보편적인 지식이 성립되었지만, 지식/정보의 상품화는 부분적인 것이었다.

정보상품의 등장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포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이제 더 이상 생산수단의 양적팽창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혁신을 통한 생산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과학기술의 생산력화이며, 그에 기반한 생산/사무의 자동화를 거쳐, 생산 전 과정(생산/분배/교환/소비)의 유기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생산은 고립된 개인들에 의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계획되어 자원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회적 계획생산으로 나아가고 있다. - 이러한 극명한 예는 POS(Point of Sale) 시스템이다. 우리가 24시간 체인점에 물건을 사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의 정보로 다시 생산에 피드백된다. 또한 업체들간의 표준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을 공유하자는 CALS도 주목할 만하다.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식/정보는 생산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된다.

정보가 상품이 된다는 것은 단지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목록이 몇 개 더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보가 상품이 된다는 것은 또한 정보가 생산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생산이 아니라, 관계 자체의 생산이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다시피, 이제 경제의 핵심은 문화산업과 금융/보험/카운셀링 등의 서비스업이 아니던가.

■ 정보운동은 반자본운동인가?

전술했다시피, 정보는 이미 상품일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생산력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화폐관계라는 이전 생산관계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드러나며, 여기서부터 모순은 작동한다. 정보를 상품으로 만들기위해서는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든 통제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바로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명분이 되는 것은 정보생산자에 대한 보호이다. 그들에게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장하고 연구/창작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지적재산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미 성과에 대한 소유권은 자본이 가지고 있으며, 정보생산자 역시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지적재산권은 성과에 대한 공유를 저해함으로써, 막대한 생산성의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 물론 정보생산자는 그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꼭 지적재산권을 통해서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다른 사회적인 제도적 보장체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이다.

자본은 정보를 사적소유의 기반 위에 놔둘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정보가 현 생산수단의 핵심적 계기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공유는 곧 생산수단의 소유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의 권력구조에 대한 역행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싸움은 시작된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싸움, 정보공유를 위한 싸움은 이렇게 미래의 권력관계를 재편시킬 싸움이 되는 것이다. 분명 현재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으로서의 네트워크의 통제권의 항배를 둘러싼 싸움이다.

■ 정보화사회에 대한 고찰

우리는 물론 미래 정보화사회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그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결정론'에 기반한다. 기술을 사회 외적인 것으로 전제하고(기술의 발전은 자기 내적인 것으로 전제된다), 기술 내적인 특성으로부터 사회변화의 상을 추론해내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방향은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한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그것이 쓰여지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기술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자체에 내재된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몇가지 (미래학) 담론들과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보운동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보도록 하자.

■ 텔레데모크라시

정보통신의 발달이 직접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대의제의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네트워크의 쌍방향적 특성에 의해 정치인과 일반시민의 의견교류의 장이 넓어지고, 정치철차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 정치의 문제였던가? 자신의 의견을 메일을 통해 개진하고, 전자투표로 의결에 참여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정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보장해주는 못한다. -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환권에 있다. 예를 들어, 텔레데모크라시를 통해서 정치인이, 혹은 정당이나 국가(행정부)가 자기자신에 반하는 주장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혹은 텔레데모크라시를 통해서 정부의 전복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는 단순히 텔레데모크라시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정치를 '정치권'에 귀속시킬 것을 전제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시민들이 자신의 주변관계에 있어 정치의 주체가 됨으로써,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가이며, 이러한 한에서만, 정보통신을 통한 텔레데모크라시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권/비정치권의 이분법을 무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 폭발적인 상품의 양적 증대는 이른바 '소비의 사회'를 야기시켰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소비없이 이루어질 수 없게되었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노래를 부르건, 영화를 보건, 차를 마시건간에 우리의 인간적/문화적인 풍요로운 삶을 위한 모든 것이 소비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우리는 더욱더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피곤하니까' 회사가면 죽는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신용(?)사회로의 돌입은 우리를 더욱 소비와 생산현장의 순환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

생산영역에 있어서의 민주화가 이룩될 수 있는가, 즉 실제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생산수단과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텔레데모크라시는 생산/생활의 영역에서 현재의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어떻게 다중심적인 권력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며, 입법/사법/행정정보 등 정치정보의 전면적인 공개요구와 함께,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 노동운동에서의 노동시간 축소/경영에의 참여 투쟁 등과 연관하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 수평적 권력구조로 갈 것인가? /감시와 통제

네트워크의 발달은 이전의 중앙집중적 권력구조를 수평적인 권력구조로 바꿀 수 있을까? 분명 기업과 국가의 조직체제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발빠른 기업들이며, 그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덩치큰 조직구조를 팀단위의 실제 일중심의 소규모 단위로 바꾸고, 전산화를 통해 결재라인을 신속, 단순화하고 있다.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4-50대 직장인에 대한 신문 특집기사는 중간관리자의 대폭축소 경향을 말해준다. 다운사이징, 벤치마킹 등과 폭주하는 경영혁신 관련 도서들은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라인에 있어서도 TQC, JIT 등을 통해 유연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이전의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에서 권력의 분산화로 나아가는 것인가? 분명 네트워크의 발달은 분산된 점들로의 조직구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수평적인 권력구조를 보장해주는



못한다. 오히려 미래사회에 대한 비판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감시와 통제의 강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데, 바로 네트워크의 통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있는, 이전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통제는 비단 감시카메라같은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에 대한 정보가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 개인들은 언제나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것에 익숙해진 개인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다. -[토탈리틀]이나 [테러리언] 등의 영화에서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 ■ 정보화 사회에서의 노동구조

미래학자들은 정보화사회에서의 노동은 창조성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전에는 이제 단순반복적인 노동과 위계적 조직체계 속에서 억압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지식노동자(코그니타리아라고 칭해지는)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있으며, 여기서 자본관계의 소멸로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아닌게 아니라, 삼성 등 대기업들도 신입사원 모집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끼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 '학력차별을 하지 않는 채용' 등. 물론 과거와 비교해볼 때,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보다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의 노동자의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며,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다품종소량생산의 추세는 노동자로 하여금 보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 물론 자동화의 추세가 단순노동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단순노동을 양산해낸다. 예를 들면, 전화교환원이나 타이프라이터 등. 또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역시 어느정도는 단순노동이다. 이러한 단순노동은 특히 여성들의 몫이 되고 있다.-

그러나, 머리를 쓰는 노동을 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일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어진 일'을 할 뿐이며,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팔게 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계속되기 힘들어진 작업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기도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율성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즉 그들이 경영의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서 보장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영자는 노동자들의 경영에의 참여요구에는 절대적으로 물러서지 않는다.

### ■ 정보의 사유화와 독점화

비판론자가 우려하듯 이 사회에서는 정보의 독점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의 상품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며, 또한 빈부에 따른 정보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의 독점 반대/정보공개'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 달은 좀 더 엄밀하게 고찰되어야 할 듯 싶다.

첫째, 공적정보는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사적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공적정보와 사적정보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물론 문제는 그것을 구분하는데 있지 않다.) 공적정보의 공개와 사적정보의 보호는 사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데, 다시말하면, 개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이에 관련되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명분으로든 외부의 권력기관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않된다. 통신망 내에서의 질서는 그 내의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온갖 매체와 광고에서는 개인들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전세계의 풍부한 정보를 소유할 수 있음 등을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증가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도가 끊임없이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끊임없는 소비에의 유혹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상품들을 차별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위계질서를 재생산해내는 논리와 같다. 정보에의 접근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함께, 모든 정보원에 의 평등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 ■ 전세계적 제반 모순과 정보

선진제국들은 자신의 제조업적 산업기반을 제3세계에 이월함으로써, 자신들은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세계에서의 환경문제와 함께 기아/중교분쟁/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제국들은 그린라운드 등을 내세우며 남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기술을 포함한 선진국의 기술을 제3세계에 이전함으로써, 제3세계의 개구리도약적 성장을 도모해야한다. 또한 환경/여성/인권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트워크를 통한 각국의 정보교환과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 ■ 정보고속도로

각국은 2000년대를 향한 장기적 전망 속에서 향후 각국의 인프라를 형성할 정보고속도로 추진을 앞다투어 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 주도로 진행되던 정보고속도로는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 때문에 기업에게로 점차 이월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사회의 인프라가 될 정보고속도로를 둘러싸고 그것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권력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정보고속도로의 추진을 국가가 하든 민간기업이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의 공공성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앞으로 형성될 그것의 추진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즉, 민간기업에 작업이 맡겨지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형성된 정보고속도로에 대한 지분을 어느 수준에서 맞춰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향후 정치적 역관계 속에서 결정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또한 망 자체의 공공성과 함께, 얼마나 풍부한 공공DB를 구축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 ■ 정보화 사회에서의 운동공간

#### - 운동공간으로서의 네트워크

전술한 것처럼, 정보를 둘러싼 제 모순은 어느 한 영역의 문제는 아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내에서의 문제들이 그 자체 내에서 규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정보운동 역시 진보통신운동으로 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의 개입이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새로운 통신공간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단지 통신공간 내에서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활동의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다.

#### - 인터넷의 가능성

아직 통신공간은 어떠한 질서도 정립되지 않은 이제 개척되고 있는 사회이다. 때문에 무척 무질서하게 보일 수 있으며, 특정한 문제점을 둘러싼 해결책 역시 전범이 없다. 그래서 통신 내의 권력선점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통신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자본/국가권력과 그 쌍방소통의 가능성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소통과 연대의 형식을 모색하고자하는 진보적인 흐름 사이에서 말이다.

군사/학술망으로부터 출발한 인터넷은 이제 세계 각지의 네트워크를 묶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되었고, 자유로운 소통을 욕망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점점 자신을 불려나가며, 아직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않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과 통제도 없으며,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갖가지 실험이 행해지며, 다양한 성격을 가진 수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쌍방향적인 소통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상업적 가능성을 포착한 자본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나갈지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단일한 중앙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탈중심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권력형태의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대부분의 매체는 소수의 정보제공자와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이분화된 구조 속에서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독점되어왔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제공자와 소비자가 따로 구별되지 않고, 누구나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므로, 정보생산자/소비자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단일한 중앙을 갖지 않은 사회가 어떤 식의 질서를 형성해나갈지 선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네트워크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려는 세력에 대한 반대, 토론을 통한 새로운 합의 구조의 창출, 자율적인 네트워크의 계속적인 결합을 통한 말그대로 인터넷의 풍부화를 도모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 - 인터넷 상의 진보단체

인터넷 상에는 갖가지 색깔의 단체들이 혼재해있으며, '진보적'이라고 표방하는 단체도 무수히 많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상의 진보적인 단체들을 선별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SING이 그 입장과 활동을 주목하고 있는 몇가지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정보문제의 사회성을 주목하는 단체로서는 CPSREFF, FSF,APC,LOL,Greenpeace등이 있다.(이혁의 인터넷상의 주목할만한 사회단체참고)

#### - 국내 진보통신운동의 현황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적 사회단체들의 통신이용 실태는 아직 자료나 의견 교환의 수준에 불과하다. 통신상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예전부터 활동해왔던 바통모 등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 '통신운동'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은 주목할 만한데, 참세상 내에 위치한 '진보통신'이 그것이다. 아직 어떤 동일한 이념 속에서 움직인다고 보다는, 말그대로 '진보'와 '통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한 연대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 벌어졌던, 통신상에서의 518 특별법 제정 서명 운동 등이 그것이다. 아직은 작지만, 통신상에서의 움직임은 통해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자하는 실천의 시작이라고 보여진다.

■ 마치며...

아직 고민의 수준이 많이 부족하고, 시간에 쫓겨 쓰느라, 상당히 추상적이고 많은 비약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이 특히 부족했던 것같아, 무척 아쉽다. 정보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경도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사실 구체적인 전망과 실천의 방향은 말하기가 무척 힘든 부분이다. 아직 많은 실험과 싸움이 필요할 뿐이다. 싸움은 언제나 있다.

# 1.11. PC통신을 통한 여론형성의 모색

## : 5.18 통신서명운동을 바라보면서

경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각계각층에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제 3의 언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PC통신 상에서도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등 대형상용BBS(Bulletin Board System)내의 몇몇 진보적인 통신동호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서명운동도 함께 모색되고 있다.

5.18과 같이 굵직한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PC통신을 통한 대응은 이제 어느정도 정례화되어 가고 있으며, PC통신은 화석화된 기존의 언론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생생한 의견들이 쌍방향으로 교류되는 새로운 여론형성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아직까지 통신이용자가 10-2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매우 유행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사회적인 컴퓨터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PC통신은 무시 못할 하나의 여론형성의 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PC통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여론형성을 주도해왔던 신문,방송등의 매스미디어 및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PC통신에 귀 기울이게 하게 하였다.

물론,아직까지 PC통신 자체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여론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하며, 여전히 기존언론의 전파를 타는 것만이 주목되는 경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구지하철폭발 사건이나 삼풍백화점붕괴사건등에서 보여주었던 PC통신의 역할은 비판적 여론형성뿐 아니라 1차적인 사실보도차원에서 기존언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언론에 의해 쉬쉬되었던 대구지하철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접할 수 있었던 곳은 PC통신망이었으며, 삼풍백화점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자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읽을 수 있었던 곳 역시 PC통신망이었다)을 보였다는 것 역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80년대 이후 PC가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며 인터넷에 접속되는 컴퓨터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PC통신이 국제적인 여론형성에도 한 몫 하게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얼마전 프랑스핵실험에 반대하는 서명이 2차대전당시 핵피해국이었던 일본의 두 학생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예나, 90년 중국의 천안문사태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데에 인터넷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예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의 선전,선동중심의 일방적인 소통구조로는 쌍방향적인 PC통신의 구조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이텔의 청와대 게시판 폐쇄사건이나 지난 지자체 선거당시 후보게시판의 썰렁함이 보여주었던 진실이다.

이제, 민중들은 권력자의 신문고를 두들길 필요가 없다. 실리지 않을 것을 뻔히 아는 독자투고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 한 대와 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여론화시켜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현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 통신망에 개설되어 있는 토론실을 10분만 열람해도 느낄 수 있듯 PC통신의 토론문화는 아직 천박한 수준이며, 컴퓨터가격 및 통신요금 또한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쌍방향성이 생명인 통신공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력은 토론에 강한, 즉 부단한 자기변혁을 통해 일관성을 추구하는 집단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1984년 식의 통제된 사회의 모델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네트워크의 생명력은 끝없이 확장되어가며 자기조직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명하달식의 피라미드 권력체제를 고집하는 기존의 권력층은 이러한 일련의 경향에 곤혹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폐쇄적인 공동체(예를 들면 북한)는 전지구적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순간 자신의 존립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아직까지 북한은 군사망을 제외한 인터넷의 연결은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C통신망의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PC통신망을 통해 새로운 진보적인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찬 논의와 실험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시대에 뒤떨어진 통제메카니즘과 싸우면서, 일군의 크랙커(시스템파괴자)와 같은 테러리즘, 네트워크자체를 부정하는 문명비판주의 및 각종 황색여론과 좌충우돌하면서 뼈저리게겠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일구어 낼 것이라고 진단해본다. 물론, 현실은 낙관도 비판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보란 이미 존재하는 만큼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하려는 생명의 과정일 것이며, 부단한 실천만이 낙관적이든 비판적이든 화살표를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 1.12. PC통신 단체들의 현황( 조윤경<sup>20</sup>)

한과정 인터넷모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기위해 통신운동에 관련한 토론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의 3번째 주제인 "통신단체들의 현황"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은 여러 통신단체들의 게시판 및 신문기사의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진보통신운동의 대두>

- 1) 현대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생산력의 요소의 하나가 정보이다. 이 정보를 자본이 독점하는 것은 곧 자본에 의한 민중 통제임을 뜻한다.
- 2) 현대 정보사회에서 그 가치체계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도 구로서 잉여가치의 더 많은 생산을 위해 "통신"이 탄생
- 3) 정보고속도로를 통한 자본의 민중 통제에 맞설 조직운동적 대안들인 진보통신단체들

## <우리나라 PC통신현황>

- 1) "초기화면"에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운동"이라는 현대의 운동 방식이 주류를 이룸
- 2) 비비에스의 '주인'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 현실 (정치적견해 차이도 인한 자격박탈 등)

## <우리나라 PC통신의 특색 >

- 1) 타율에 의한 통신예절을 중시하는 경향 : 통신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통신상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2) 대화방 인기 : 대화방을 통한 오프라인의 만남을 형성 (건강하게 키워야할 문화)
- 3) 게시판이용의 활성화 (데이터베이스의 빈약) : 외국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중심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낙서문화(바람직 하지 못함)
- 4) 토론문화의 부재 (대화연습이 부족한 남한사회의 한 특징)

## <통신운동이란>

- \*\* 통신을 통한 운동 : 통신과 통신공간을 수단/도구로 생각하는 것
- \*\* 통신에 대한 운동 : 통신공간의 독자성을 강조 통신공간 자체에 대한 민주주의와 정보사회 통신공간의 중요성을 강조( 사용자 운동 : 주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들이 그 주인을 향해 서로의 힘을 모아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 )

## ■ 세상 비비에스

- 1) 모임지기 : 김형준
- 2) 모임소개 :
  - 93년 7월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Hinet-P망을 통해 전국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독립네트워크/자치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다.
  - 독자적인 DB구축을 목적으로 정보운동과, 사회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 현재 총 12개의 정보제공자와 30여개의 노동 인권 문화운동 관련 사회를 주제로 한 포럼이 있고 자료실과 대화방, 온라인게임 등을 갖추고 있다.

20. 이글은 참세상 '한국과학기술청년회'에 계신 과학사립편집위원 조윤경씨가 참세상에 11월 4일날 올리신 글입니다. 국내 통신단체에 대한 정리를 무척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지난 2년간 회원이 꾸준히 늘어나 5천명을 넘어섰다.
- (참고) 84년 서울대 프락치사건으로 제적당했던 김형준씨는 군복무후 구 공단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이때 노동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필요성을 절감, 93년 비슷한 이력을 지닌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참세상을 시작했다.
- 3) 주요활동 :
  - 참세상은 2중적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1)경쟁력 있는 2)진보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것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상업적, 자본적 BBS에 뒤지지 않겠다는 것 반면 진보적 네트워크라 함은 현재의 각 사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메뉴 구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진보성 유지)
  - 현재 참세상에는 아직 대표 운영자가 없음. 직접선거로 대표 사상을 뽑을 계획
  - 지금은 국제적인 진보적 네트워크 형성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칭 APC라는 국제적 진보 통신망이 있습니다. APC는 말하자면 민간단체(NGO)로서의 통신단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 전세계적으로 약 40여개의 참가단체와 참관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 운동권이 기껏 하는 통신활동이란게 상업적 BBS 내의 동호회 게시판에 '도배'나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 ■ 하이텔의 바른정보통신을 위한 모임

- 1) 하이텔 : barun
- 2) 모임지기 : 최세진
- 3) 모임소개 :
  - 약 5년전 출발
  - 정보통신속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속에서 하나의 자주적 모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용자 모임
  - 사용자 운동 지향
  - 10여명의 고등학생회원들의 주도하여 대중 가운데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지향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 '바른정보통신을 위한 모임'으로 결정 "바른정보통신을 위한 운동이란 정보통신 영역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부문계열 운동"
  - 주로 분과 중심의 활동 : 분과체계의 틀거리는 대략 2기(91년 5월~92년 2월)에 마련됐고, 4기(92년 9월~93년 2월)에 접어들어 안정되기 시작했다. 현재 사회, 과학기술, 문화예 술, 여성, 청소년 이렇게 5개 분과가 활동중이다.
  - 긴 호흡 강한 걸음으로 진보사회를 / 사회분과
  - 지구의 절반을 되찾으려는 '소금꽃' / 여성분과
  - 삶의 문화, 진실의 예술 / '잘 나가는' 문예분과
  - 영화 소모임 <영화벌레>
  - 만화 소모임 <만화누리>와 비디오 소모임
  - 우리시대의 참된 과학, 기술을 탐구 / 과학기술분과
  - 14인치 모니터에 마련한 푸른 교실 / 청소년 분과
- 4) 회원상황
  - 회원가입을 위해 바통모 회칙을 찾아본 적이라도 있는 사람은 2000명을 훨씬 넘으나 그 활동을 인정 받은 정회원은 이제 60명선이다. 준회원과 회원 가입 대기 중인 사람까지 합하면 400 여명이다.
- 5) 주요활동
  - 통신공간/정보화 자체의 민주화에 있다.
  - (진보적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밝혀야 할 문제는 컴퓨터 통신이 담고있는 '자본성(資本性)'이고, 우선적으로 할 일은 통신의 그런 성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러한 대응으로 우리는 '이용자 운동'에 주목. 이를테면 각 상업 BBS의 이용자 규약에 담긴 불평등성을 개정하는 문제 등)
  -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개표결과를 독자적으로 집계 (부정선거 감시활동/전국 308개 개표소/순수민간)
  - 컴퓨터 사용법을 모르는 농민단체 지원
  - 쌀개방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 <민주통신단체 협의회> 활동
  - 하이텔 공공게시판의 조희수 폐지운동
  - 한국통신 게시판(kttu) 무단폐쇄에 대한 대응
  - 삼백백화점 사태시 게시판을 통한 속보팀 활동(통신을 통해 실종자 가 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 한국통신 게시판 폐쇄의 경우 한통노조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통신활동 자체에 대한 억압으로 이해하고 대응

### ■ 천리안의 현대철학동우회

1) 천리안 : go PT

2) 모임지기 : 김바로 (남. 28세. 경북대 87학번)

3) 모임소개 :

- 설립 취지는 진보적인 PC통신인들의 조직

(즉 PC통신을 하는 모든 PC통신인들이 삶과 세계에 대해 넓고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세계관의 확립"이 설립 취지)

- [현철동]은 93년 9월 1일에 만들어 졌다.

-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철동]을 기억하게 된 계기는 통신탄압 사건 (93.12부터 94.3까지 3명 구속)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부터다.

\*\* 더불어 당시 3명의 구속자중 1명이 최근 무죄를 선고 받음

\*\* 이는 [통신탄압 규탄집회], [민주통신단체협의회] 결성 등으로 진보적 통신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앞으로 진보적 통신운동의 전개함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9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현철동]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한겨레비평 소모임]과 [대구경북진보통신인모임]의 결성으로 시작된 소모임 활동과 지역 모임 건설 움직임이다. 한번의 격변을 거치면서, 전체로서의 [현철동]은 다시 자율적인 소모임 단위로 세분화되고, 수동적인 참여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되가고 있다.

- 천리안 내에 희망터라는 진보적 동호회가 이미 있었음에도 현철동을 굳이 만든 이유는 하나는 '희망터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운동단체와 연계된 활동을 모색한다'는 것- 현재 현철동은 '운영'의 문제를 주로 고민하는 중

4) 활동내용

몇 가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도, 통신운동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정보 기술에 대한 접 근의 공평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신공간은 정보화 사회의 기간 공간이다. 따라서 누구든 쉽게 그 공간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며, 그공간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이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 통신은 정보를 쌓아둔 창고이다. 이 창고는 누구든 쉽게 열어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쉽게 정보를 쌓아 둘 수 있어야 한다.

진보적 가치를 생산, 집적, 확대해가야 함은 물론이고, 그 진보적 가치를 지닌 정보의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상업 BBS는 자본의 광고에 의해 마치 통신공간이 이것 밖에 없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통신인구를 포섭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철동, 희망터, 바통모, 노문연 등의 상업 BBS 내의 동호회는 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 할 수 있고, 다수에게 진보적 가치를 지는 정보를 확산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상업 BBS로 부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각주7>

(3) 그리고, 통신 또한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 먼저 진보적 사회단체와의 연결망을 확보해야 하며, 통신 내외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보다 대외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 통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통신외부 단체와의 연대 활동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펼쳐야 할 것이다.

### ■ 천리안의 희망터

1) 천리안 ( go pp )

이 희망터 동호회도 부산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극단 희망터 사건에 연루되어 회원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 ■ 나우누리의 천우물

1) 나우누리 go cw

2) 모임지기 : 이종석

- 94년 8월경 모임결성 취지는 "통신공간의 운동권 조직"

- 다양한 부류와 계층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이해는 "진보"현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찬우물동우회를 통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

- 흔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애국적 사회진출'을 한다고 많이 했지만 여건상 그게 쉽지 않다. 찬우물에서는 사회운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통해 하여 운동감각을 유지 하도록 도와준다.

- 한국통신 게시판 폐쇄 사건에의 대응이나 삼풍 속보팀 활동 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 결합해서 활동했다고 생각

3) 인원현황

현재 운동을 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운동을 했던 사회인들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4) 활동현황

- 삼풍백화점 사태시 게시판을 통한 속보팀 활동(통신을 통해 실종자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 한국통신 게시판 폐쇄의 경우 한통노조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통신활동 자체에 대한 억압으로 이해하고 대응

### ■ 나우누리의 진보청년통신동우회

1) 나우누리 : ssociety 5

2) 모임지기 : 오용호 (서울대 약학과 89학번)

3) 모임소개 :

- 진보청년통신동우회(약칭 '진청이네')는 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진보민청) 가입단체인 서울진보청년회(약칭 '서진청')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통신 동호회다.

- 처음 온라인모임으로 시작 'TPC통신망을 통한 회원 직접민주주의 구현'이 목적(진청이네는 '조직에 근거한 통신활동'을 중시. 통신을 통해 조직 성원 간에 단결의 기운을 높이고 성원 사이에 이해를 풍부히 하는 것)

- 현재 독자적 운동단위의 성격을 갖는 측면을 고려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 총회에서 명칭도 '서울진보청년통신동우회'에서 '진보청년통신동우회'라고 바꾸었다

- 이를 통해 "안정화/전문화/다각화 그리고 "회원들의 자발적 토론 분위기 조성"에 힘쓸예정.

"진청이네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출발했습니다. 우선은 통신을 통해 서진청이라는 조직의 내적 민주주의 실현이었습니다. 이는 일정하게 성과를 보고 있는데, 서진청 회원의 적지 않은 수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서진청 회장님 같은 경우는 통신 덕분에 굳이 회원들과 연결가능성도 불투명한 전화통화에 국한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청이네 활동의 두번째 목적은 통신을 통해 서진청 활동을 대중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진청이네에 서진청 회원이 아닌 분들도 가입하고, 그분들과 다양한 interaction을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3) 회원현황

- 정회원은 21명으로 %는 서진청 소속/ 준회원은 19명으로 2, 3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서진청 소속이 아닌 사람들임

- 실제로 대학생은 적은 편입니다. 주로 25세에서 30세까지가 많은 편

### ■ 정보연대 SING

1) 인터넷 : <http://sing.sing-kr.org/>

2) 모임소개

정.보.연.대 (SING, 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 소개글

\* 정보연대의 입장과 활동방향

1. 정보의 상품화에 반대하며 정보의 공유를 주장합니다.

-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생산적인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 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고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적소유권에 반대하고 '정보공개법'을 주장하며, Copy Left(反 Copy Right)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합니다.

# 산업/행정/학술/문화 등 공공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확충을 주장합니다.

# 정보공개운동에 동참하는 정보생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고민합니다.

2. 정보 및 정보처리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될 수 없습니다.

# 행정 및 입법, 사법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건없이 완전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 소수엘리트들의 정보처리기술의 독점에 반대하며, 정보처리교육의 사회적 보장을 주장합니다.



# 정보통신망의 사용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하며, 이는 통신기반의 확충과 운영기금으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3. 민주적인 통신공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 발달한 디지털통신기술에 기반한 쌍방향/직접적 의사소통과정이 공동체 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실제적 힘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 통신공간에서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형태의 정보 검열에도 반대합니다.

# 개인적인 정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 보장을 위한 암호화기술의 공개를 주장합니다.

#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계획 및 운영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정책참여 보장을 주장합니다.

4. 정보독점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활동을 고민합니다.

- 다국적기업 및 기술선진국들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세계정보 흐름의 질서는 전지구적 협력의 차원에서 재편되어야 합니다.

# 일국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전세계적 공공이익을 위한 각국의 정보생산 자들의 연대를 촉구합니다.

# 성, 환경, 인종 문제에 대한 진보적 입장을 국제적 흐름으로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해외진보단체의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진보단체의 통신이용을 지원합니다.

### ■ 참세상 "통신연대"

진보통신단체 연대의 필요성에 의해 결성

1) 참세상 비비에스 (go jinbo)

2) 구성단체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하이텔 / barun)

- 정보연대 SING (<http://power1.snu.ac.kr:8080/>)

- 참세상 (참세상)

- 진보청년통신동우회 (나우누리/ ssociety 5)

- 찬우물 (나우누리/ cw)

- 한과청 인터넷소모임 (<http://www.ink.co.kr/~komsat>)

- 현대철학동호회 (천리안 / pt)

- 희망터 (천리안 / pp)

이 중, 바통모와 SING, 참세상, 한과청은 진보운동방향 정보사회의 본질문제에 접근하여 운동하고 있으며, 현철동과 희망터는 반정부 투쟁활동을 통신 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찬우물은 아직 중도 입장으로 보여지나 최근 토론 양상을 봐서는 전자의 노선을 향하고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새로 발족한 통신연대 게시판의 모양과 최근 활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활동일지 :

1995년 9월6일 참세상BBS에 전용게시판 개통

10월1일 첫 공식 모임 (칸타타에서)

10월2일 5.18 특별법제정 위한 통신서명운동 시작

10월14일 5.18 인터넷 서명 시작

10월17일 "통신연대"로 약어 결정

10월21일 대학신보와 인터뷰를 통해 오프라인홍보 및 활동 시작. 바통모 전 대표시습 장여경 양이 임시 대표로 게시판 관리와 대외 활동 중.

### ■ 인터넷의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모임

인터넷 : <http://kpd.sing-kr.org/komsat>

참세상 비비에스의 한과청 비비에스

1) 참세상 비비에스 (go komsat)

2) 모임소개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조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비비에스 개설

- 초기 과학기술관련 DB구축과 회원들간의 우호를 위해 진행되었으나 현재 활동이 극히 미비

## 2. VOL. 1 #1

# 1996년 2월 5일 배포되었습니다.

2.1. 편집자의 변 (글쓴이 : 박인성) 60

2.2. SING 팀별 활동 상황 및 이후 방향 60

2.3. 이니오 유평화 반대 투쟁과정과 그 의미 63

2.3.1. 이니오 유평화 및 반대투쟁 경과 63

2.3.2. 이니오 문제에 대한 분석 74

2.3.3. 이니오 사태를 바라보는 정보연대 SING의 입장 95

2.4. Copyleft운동을 제안하며 97

2.4.1. Copyleft에 관하여 97

2.4.2. Gnu 선언문 100

2.4.3. 프로그래머가 바라보는 Copyleft 105

2.5. 통신연대 워크포럼 108

2.6. 소설 [Login] 서평 113

2.7. 사회단체 메일링 리스트 개통 공지 113